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11** Vol. 203

부록 부산문화회관 11월 공연캘린더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롯데 펜트하임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노블레스 음악회

김지연

지휘 | 오충근(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 박정원(Sop), 김동규(Bar), 김지연(Vn), 김연정(Pf)

Program

웨버 / 오페라의 유령

A. Webber / The Phantom of the Opera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1st mov. Moderato

생상스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C. Saint-Saëns / Introduction & Rondo capriccioso op. 28

베르디 / 일트로바토레 중 <보세요, 나의 고통스런 눈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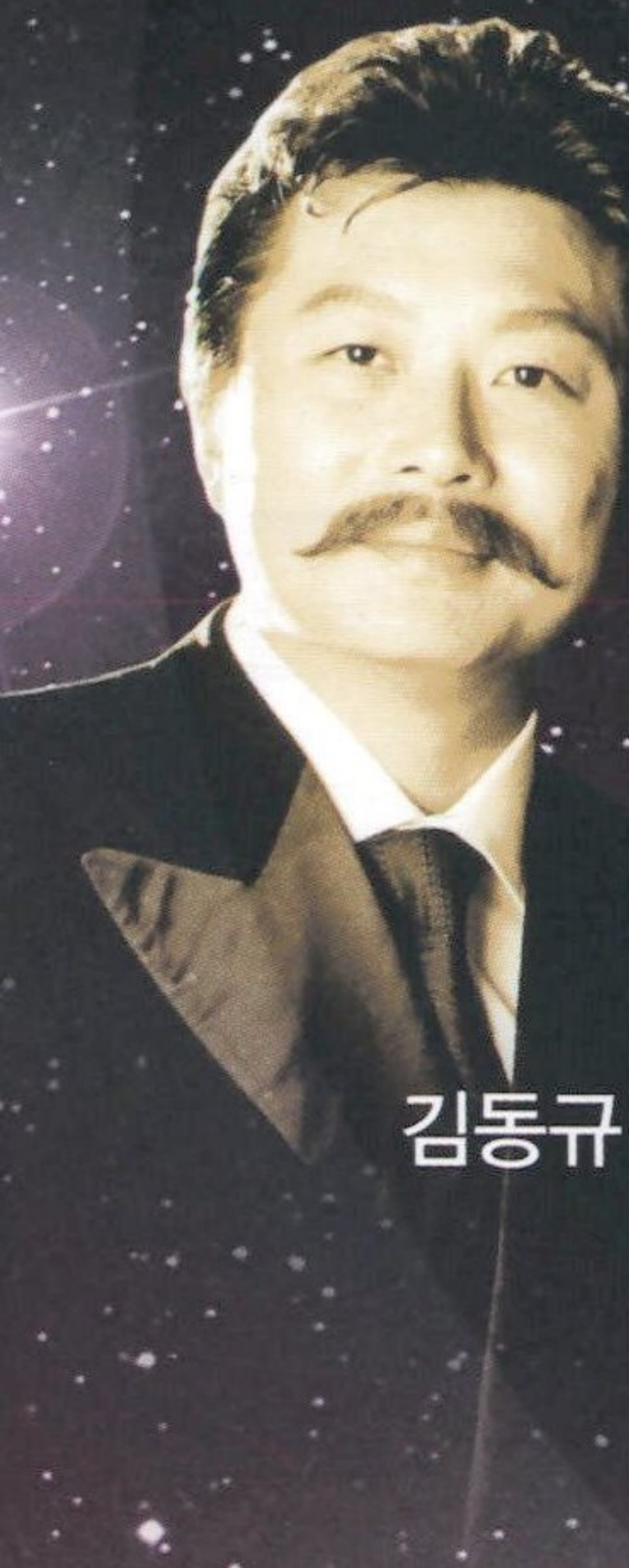
G. Verdi / <Mira di acerbe lagrime> from opera "Il Trovatore"

마르퀴즈 / 단조 2번 외 수곡

A. Márquez / Danzon No. 2

2008 | 11 | 10 | 月 | 오후 7시 30분 부산KBS홀

BSO Members 제1바이올린 임병원(악장),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권아름, 조영숙, 김희진, 이은실, 이윤영, 서영희, 지희원, 손소영, 이지윤, 임나리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황지원(수석), 배연주, 김현정, 서희은, 김신실, 손주연, 정희경, 이수진, 정다혜, 박완서 비올라 박주연(수석), 김지연, 한동민, 곽유진, 이승연, 이영화, 김나영, 김주현, 배소현 첼로 김판수(수석), 김정원, 최지양, 서송은, 김혜은, 이원아, 하내희, 김유미, 강진희 콘트라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권명국, 이현정, 박지선, 윤민우, 플루트 최낙주(수석), 김보현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호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윤기영, 이민정 트럼펫 주 현(수석), 전경윤 트럼본 이웅희(수석), 박서연, 유상미 튜바 김기울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 전상천, 김윤수, 정종혁 악보 문지은(부수석), 유종호, 악기 정종혁



김동규



박정원



김연정



오충근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후원 롯데 펜트하임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문의 051)744-5113
예매처 인터파크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열정... 그리고 순수함

메시아 / 아기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Vingt Regards sur l'Enfant - Jesus

- 아버지의 시선 | 별의시선
- 하나님과 사람의 변신 | 성모마리아의 시선
- 아들에게서 아들을 보는 시선 |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 십자가의 시선 | 하늘의 시선
- 시간의 시선 | 기뻐하는 성령의 시선
- 성모의 최초의 성체 배수 | 전능하신 말씀
- 크리스마스 | 천사들의 시선
- 아기예수의 입맞춤 | 예언자와 양치기와 동방박사들의 시선
- 침묵의 시선 | 무서운 도유식
- 나는 잠들어 있지만 마음은 깨어있다 |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시선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Kun Woo Paik Piano Recital

2008. 12. 2. 화요일 오후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일보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공연기획 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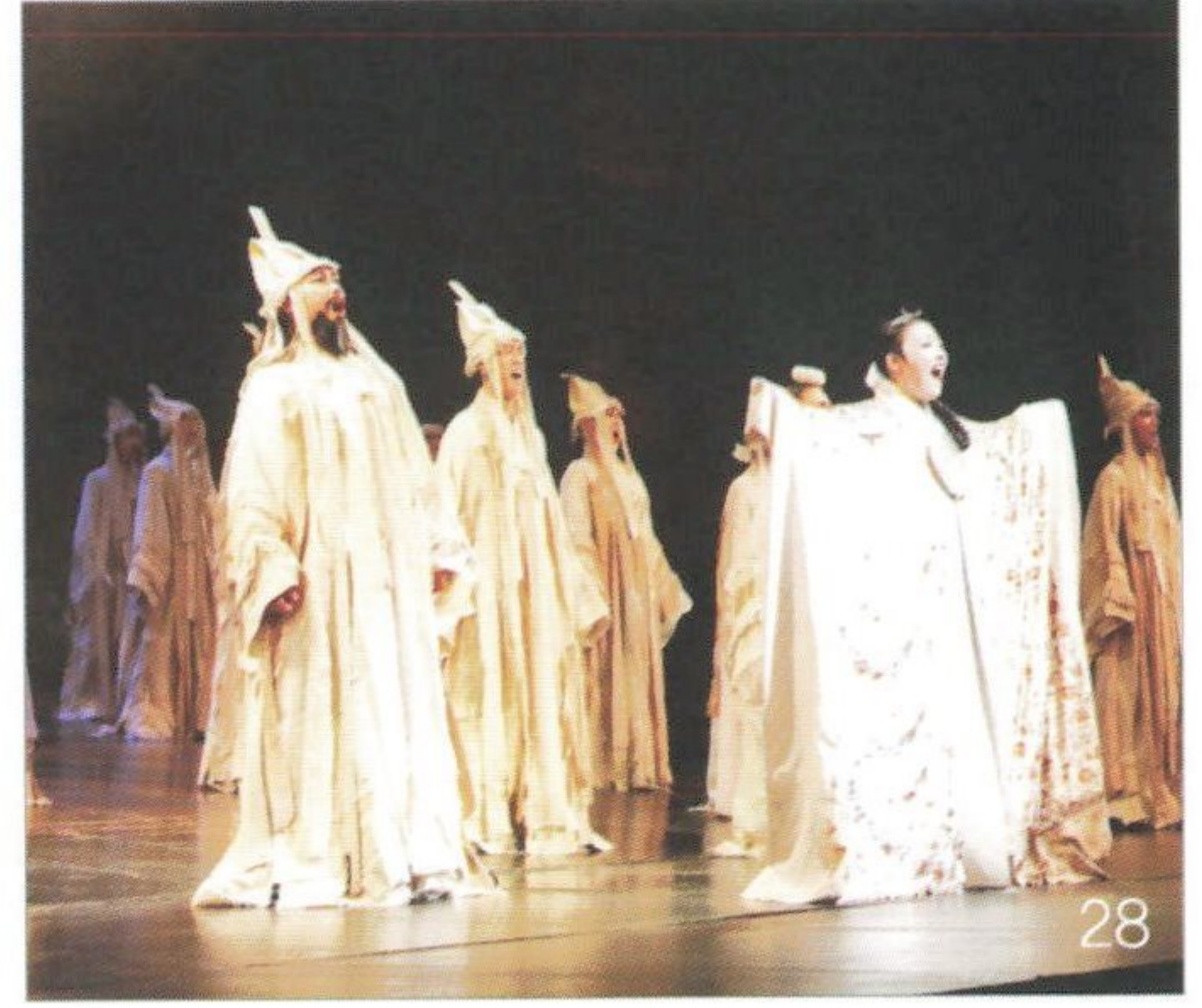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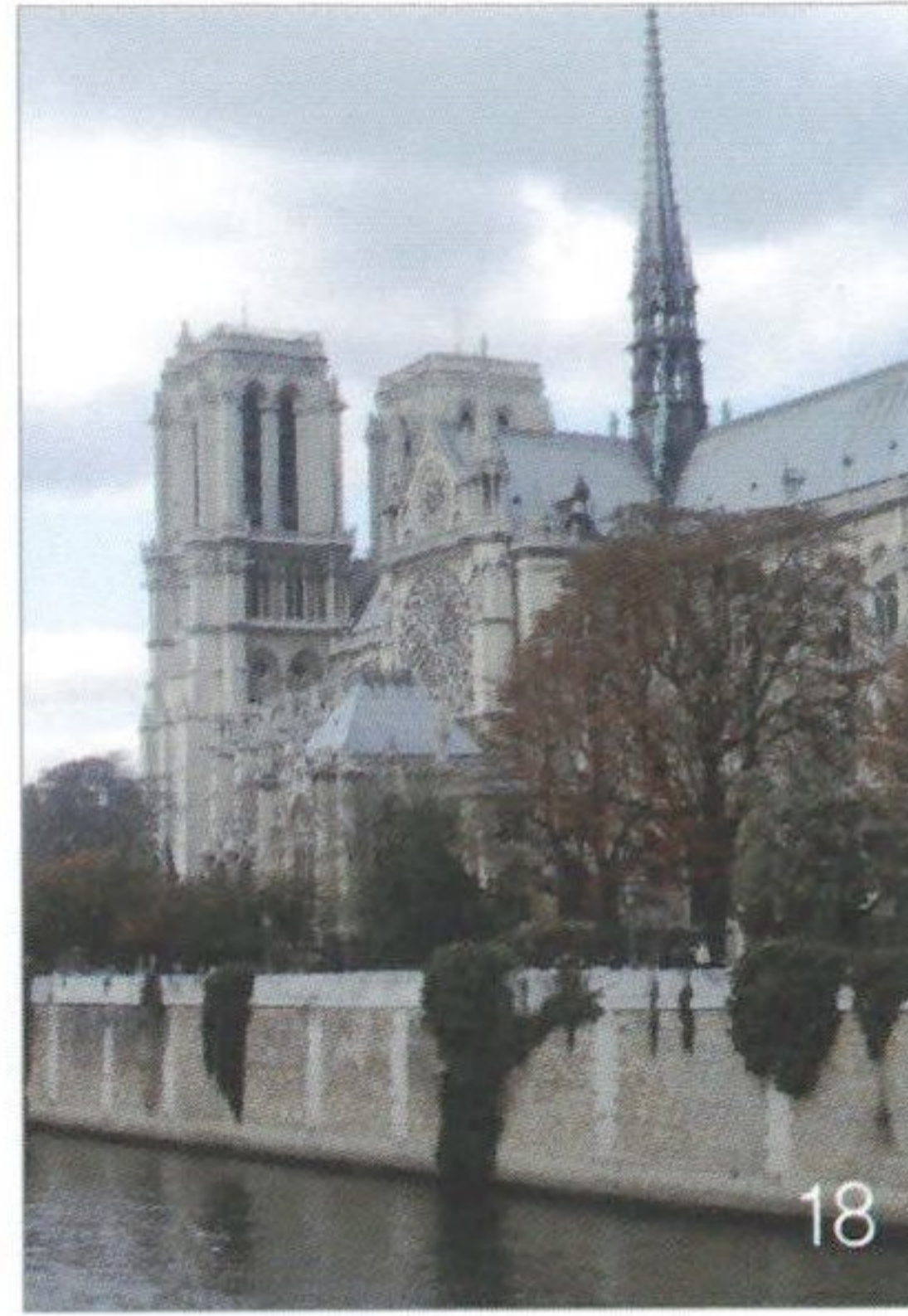
예매 : 220-5341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은행 전지점
582-2026 (공연기획 예성) 인터파크

협찬 : 안진중공업 THE FACE 드라마 피부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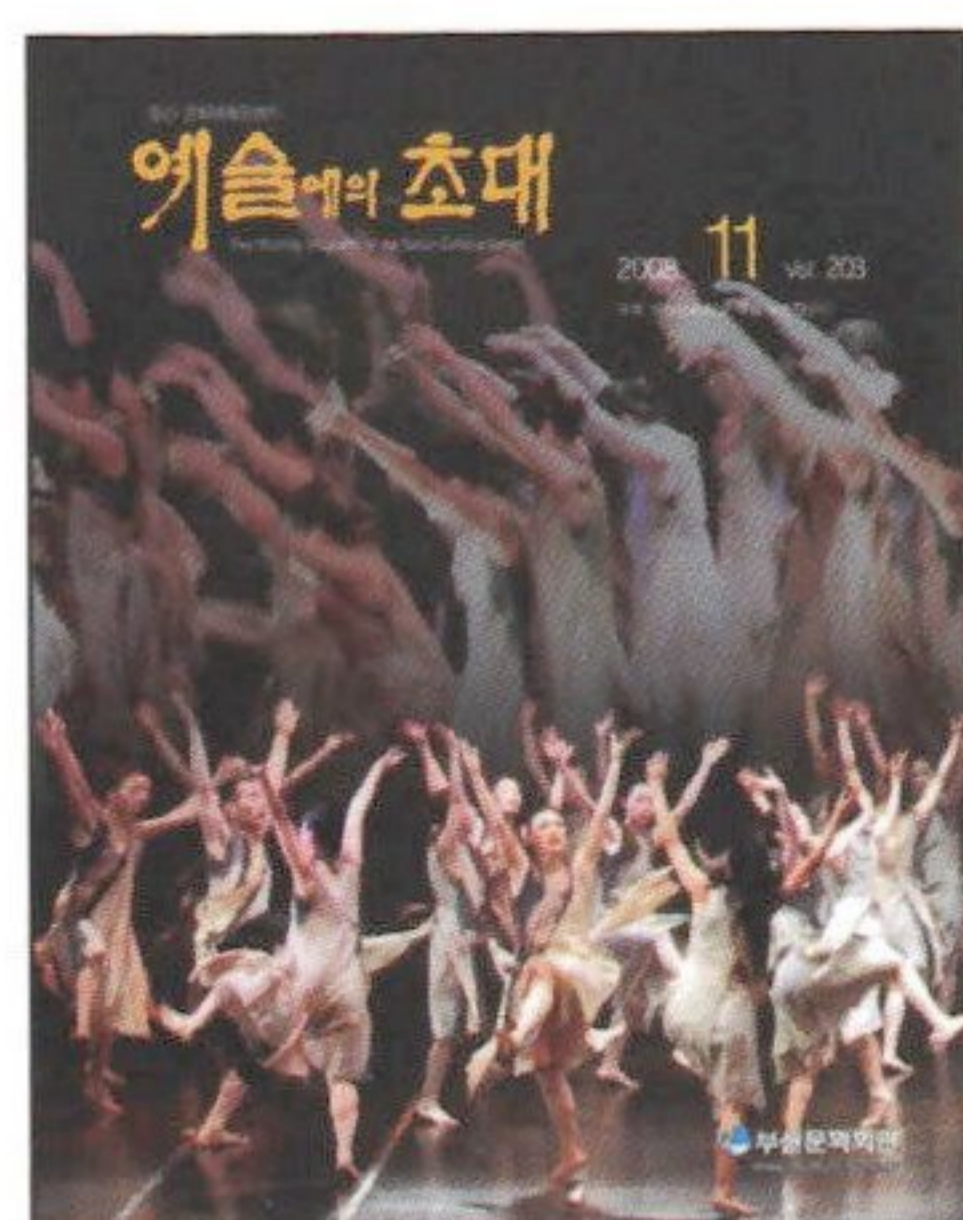
정신과 전문병원 임원 양산병원 최우석치과의원

INFINITI.

티켓 : 가족석(4인) 200,000원 |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커버스토리	08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길.들.여.진 토끼'
반갑습니다	10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손열음
프리뷰	12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16	나운영과 달밤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18	작은 Paris 큰 Paris _ 이재걸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2	선과 면이 꾸미는 우리만의 맛 _ 채경혜
우리는 문화 가족	24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5	탱고의 황제, 까를로스 가르델 _ 황윤기
그곳에 가면	26	늦가을 정취로 가득한 자연휴식공간 경상남도 수목원
프로그램 가이드	28	
새로나온 책	42	
나의 애청음반	4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영웅의 생애'
부산문화회관소식	44	
100자 토크	45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48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10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오는 11월 5일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무대 '길.들.여.진 토끼'는 인간과 토끼 습성의 공통점에 대한 단상을 춤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November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대·중전시실
11월 3일(월)~11월 7일(금)
문의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510-1738)

■ 제 28회 부산미술제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대, 중전시실
11월 10일(월)~11월 16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한국추사체 연구회 전국회원전-대전시실
11월 17일(월)~11월 20일(목)
문의 : 김종영(011-772-8587)

■ 경성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중전시실
11월 17일(월)~11월 23일(일)
문의 : 박상인(010-2032-3481)

■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대전시실
11월 21일(금)~11월 26일(수)
(21일 오후 4:00 오픈)
문의 : 안현희(011-9526-1194)

■ 제 19회 청남서에 대상 전국회화대회
입상작전시회-대전시실
11월 27일(목)~11월 30일(일)
문의 : 김상훈(016-850-2632)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천연염색
작품 전시회-중전시실
11월 28일(금)~11월 30일(일)
문의:박소현(970-3722)

국제회의장

■ 2008 부산국제합창제 세계합창워크샵
11월 13일(목)~11월 15일(토)
문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Sunday	Monday	Tuesday
<p>11/30</p> <p>중 제 12회 새물결 동인 춤모음전 17:0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소 예향음악학원 연주한마당 14:00 무료/김정숙(010-2840-0580)</p>	<p>12/1</p> <p>대 강미리의 춤 '궁' 19:30 균일 1만원/강미리(011-9339-6991)</p>	
<p>2</p> <p>중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테마독주회II '러시아의 추억' 19:00 초대/이라희(010-4604-7040)</p> <p>소 휴피리 제 16회 정기연주회 '바람이 되는 꿈...' 15:00 무료/박철현(010-8392-1202)</p>	<p>3</p> <p>소 이은영 클래스 연주회 19:30 무료/이은영(016-6221-0795)</p>	<p>4</p> <p>중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웰빙 콘서트 '시와 가을, 최진희의 노래가 있는 가을이야기'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중 소리테 플루트앙상블 제 1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경희(010-5580-7824)</p>
<p>9</p> <p>대 서울신포니에타 제 13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패밀리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서울신포니에타 (02-732-0990, 011-272-0993)</p>	<p>10</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신라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소년소녀 가장동기를 위한 제 18회 글로리아이어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한명숙(019-9253-9991)</p>	<p>11</p> <p>대 유U:콘서트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하모니'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p> <p>대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제 23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그리고 화상...'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620-2222)</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폴란드 음악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p> <p>소 윤경선 가야금독주회 19:30 초대/윤경선(017-501-2898)</p>
<p>16</p> <p>대 2008 팝스콘서트 15:00, 19:00 예술의전당 회원 전석초대/예술의 전당(02-580-1414)</p> <p>중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1만원 · 5천원/장극태(011-582-5189)</p>	<p>17</p> <p>소 김소희 클래스 연주회 19:30 초대/김효영(016-543-1631)</p>	<p>18</p> <p>소 초등음악분과 제 2회 발표회 19:00 초대/박은숙(011-9532-5759)</p>
<p>23</p> <p>대 뮤지컬 '명성황후' 14:00, 18:00 11만원 ·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부산문화방송(760-1166)</p> <p>중 2008 서지영무용단의 창작 우리춤 레퍼토리 '바람이 전하는 말' 19:30 균일 1만원/서지영(753-9103, 011-847-9103)</p>	<p>24</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경성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남구 오록도여성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나눔, 행복 100%' 초대/김옥련(010-2533-7913)</p> <p>소 제 15회 동요사랑큰잔치 18:00 무료/김성덕(010-4541-8576)</p>	<p>25</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동의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테너 강학운 클래스 음악회 19:30 초대/강학운(019-9287-6350)</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1</p> <p>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 제 9회 동의대학교 학점은행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9:30 초대/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중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 16:0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5</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길.들.여.진.토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6</p> <p>대 제 22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p> <p>중 현대캐피탈 VIP Invitation 금난새와 함께 하는 가족 음악회 19:30 초대/박진혁(02-780-5054, 016-232-5105)</p> <p>소 제 12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30 무료/김지영(011-9234-9638)</p>	<p>7</p> <p>대 제 22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p> <p>중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3회 원로 음악회 19:30 초대/전이동(010-2705-0366)</p> <p>소 제 2회 이수음악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양하(010-7179-8149)</p>	<p>8</p> <p>대 제 22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12</p> <p>대 2008 부산국제합창제 축하 전야음악회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2회 정기연주회 '월드 코랄환타지 인 부산'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13</p> <p>대 2008 부산국제합창제 '갈라 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소 2008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14</p> <p>대 2008 부산국제합창제 '갈라 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중 부산국제합창제 경연 '클래식-혼성' 11: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소 2008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15</p> <p>대 2008 부산국제합창제 '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중 2008 부산국제합창제 경연 '대중음악' 11:00 '클래식-동성' 14: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소 2008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워크샵'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19</p> <p>중 부산전자음악협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2008 부산국제디지털음악축제 19:30 균일 1만원/이동관(011-873-7983)</p>	<p>20</p> <p>중 오페라단 가야 콘서트오페라 '리골레토&라보엠'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오페라단 가야(016-552-2958)</p> <p>소 김도연의 춤 19:30 무료/김도연(010-7611-8281)</p>	<p>21</p> <p>중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가을의 낭만과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p> <p>소 피아니스트 김은희 클래스 연주회 18:00 무료/김은희(010-9269-5567)</p>	<p>22</p> <p>대 뮤지컬 '명성황후' 15:00, 19:00 11만원 ·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부산문화방송(760-1166)</p> <p>중 한얼정악연구소 제 13회 정기공연 '꿈틀거리는 詩語에 웃을 입히다' 19:00 2만원 · 1만원/한얼정악연구소(011-870-8597)</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6</p> <p>대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제 26회 정기연주회 '창극 흥부전' 19:00 초대/부산대학교 국악과(510-1739)</p> <p>중 2008 정말숙 한국 전통춤공연 19:30 1만원 · 5천원/정말숙(011-864-8538)</p>	<p>27</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여성합창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고봉수(010-4434-6605)</p>	<p>28</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능생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대 CBMC부산총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무료/이지무스(011-9520-4649)</p> <p>중 제 6회 부산종교인 평화 예술제 18:30 초대/부산종교평화인협의회(017-570-3618)</p>	<p>29</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극단 위자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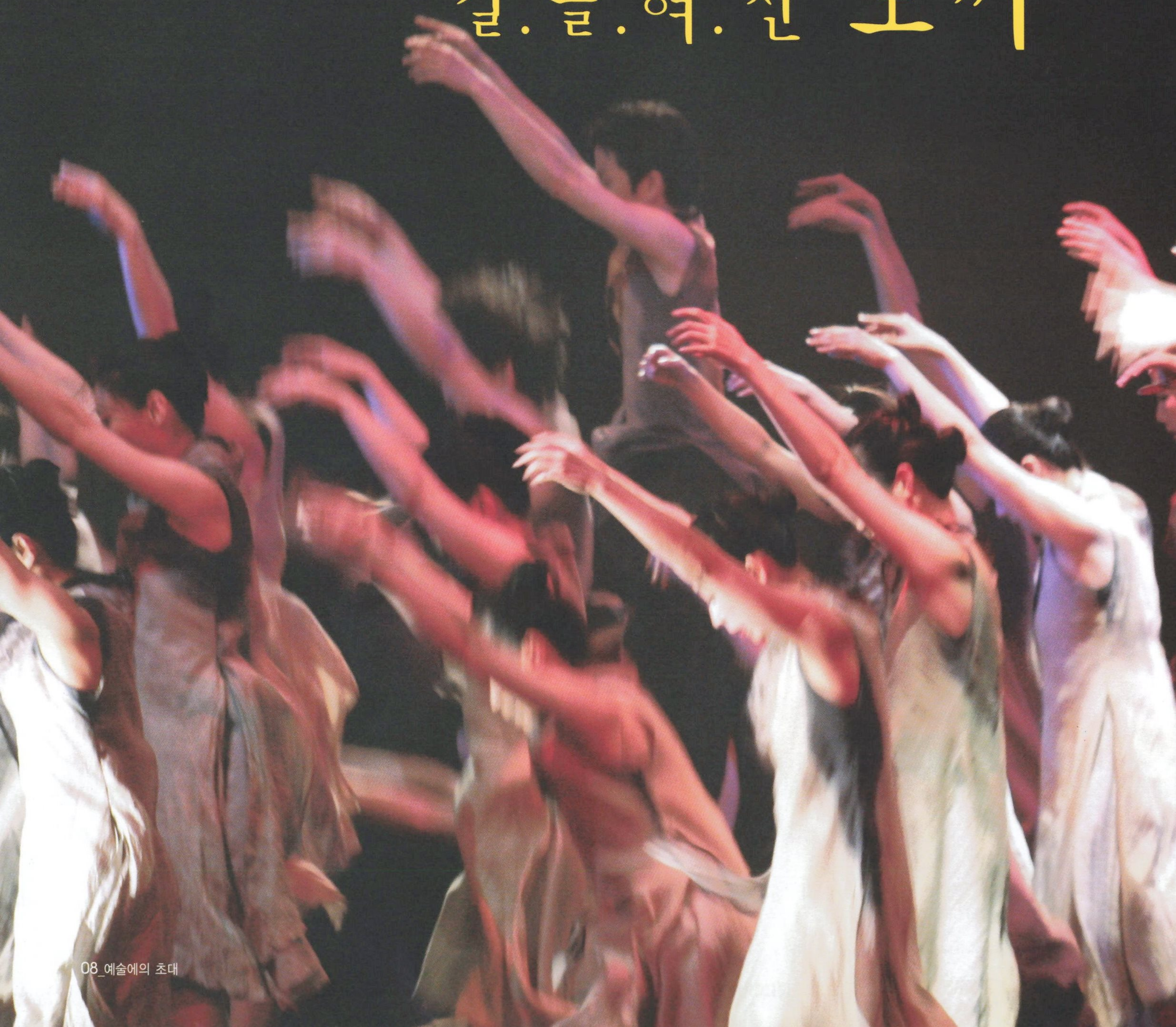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길들여진다. 토끼와 같이...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길.들.여.진 토끼’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길.들.여.진 토끼'는 어느 날 문득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되돌아본다는 명제로 출발한 새로운 스타일의 창작 무용이다.

토끼의 상징들과 여러 정황에 비유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들의 이야기를 담은 '길.들.여.진 토끼'는 내가 되기도 하고 그녀가 되기도 하며 사회, 혹은 학교와 가정이 되기도 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학교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회에 길들여지고,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또 그녀에 길들여지고 마침내 가정에 길들여지는 우리 삶을 토끼에 대입해 새로운 춤사위를 만들어 냈다. 인간과 친숙한 '토끼'의 습성을 모티브로 출발한 '길.들.여.진 토끼'는 인간과 토끼 습성의 공통점을 접목시켜 애완동물로 길들여지는 토끼에 대한 여러 단상을 춤으로 표현해낸다. '사람'도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혹은 타인이라는 높은 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애완동물화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토끼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다. 수석안무자 홍기태의 의식 내면에 자리한 '길들여진 토끼'를 통해 이미 '길들여진 나'를 떠 올리는 건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대본, 연출을 맡은 조주현 씨는 너무 무겁거나 진지한 접근보다는 쉽고 가볍고 발랄한 시선으로 작품을 풀어내고 있다. 서로를 길들이거나 길들여지고, 그래서 사는 건 다 그렇다고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작품을 꾸려냈다.

특히 이 작품은 뚜렷한 줄거리 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으로 청소년기부터 사회에 편입하는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현재의 시점들을 시차적으로 5 장면(Scene)으로 엮었다.

제 1 장면은 '길들여지기 전 단계(청소년기, blue)', 제 2 장면은 '자신을 감추려는 단계(청년기, yellow)', 제 3 장면은 '다양한 사랑(성년기, green)', 제 4 장면은 '사회의 경쟁(성숙기, red)', 제 5 장면은 '길들여지면서 제자리로(완성기, white)'로 구성, 각 장면마다 색감을 강조한 옴니버스 형식(각 장면마다 주인공)으로 춤 작품을 표현했다. 제 4 장면은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웅장한 무대세트와 군무로 작품 전체를 압도한다.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든, 원시의 정글에서 미개하게 살아가든 결국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고, 또 당연히 그 안에 귀속되어야 한다. 관점을 달리하면 그런 점에서 길들여지는 건 당연한지도 모를 일이다.

첫 번째 Scene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토끼의 아픔이 우리 유년의 길고 긴 학창시절과 닮아 있다. 이 scene은 그런 토끼의 잘못된 상식을 하나의 상징으로 <길들여지기>의 첫 단계인 '획일성'에 초점을 맞춰 풀어간다. 두 번째 Scene은 '무조건 감추고 무조건 참는' 과정이다. 토끼는 미세한 혈관들이 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매우 아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scene은 특징 감추기, 그래서 없는 척 하기, 혹시라도 누군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살필 땐 무조건 아닌 척 하기, 그렇게 참기를 다소 위트 있게 구성한다.

3번째 Scene은 서로를 길들이기 위한 줄다리기 같은 조율을 표현한다. <길들여지기> 네 번째 단계는 다소 거창하고 비장한 '항거(抗拒)'이다. 이 scene은 움츠려있던 나를 추켜세우고자 시도했던 일종의 젊음에 대한 묘사이다. '스텝핑'이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뒷발로 땅을 세게 차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토끼의 행동 중 땅파기와 더불어 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의미한다. 특히 무대(set)를 활용한 속도감 있고 무게 있는 구성을 위주로 한다. 작품의 마지막 scene은 '토끼와 사람'을 새롭게 영상 이미지화한 장면으로 영상과 무용수가 한데 어우러져 동선을 만들고, 영상에 의해 동작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Scene 1에서는 김기원, Scene 2 서정숙, Scene 3 김미란, 최의옥, Scene 4 강모세, Scene 5 김동숙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손열음

깊이 있는 음악성과 탄탄한 테크닉, 진지한 탐구력을 바탕으로 음악계의 신진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한 손열음이 11월 2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1998년 7월 금호문화재단(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음악계에 데뷔한 손열음은 데뷔 10년을 맞아 천재성에 원숙미를 더해가면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 공연을 앞두고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학업과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손열음과 서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1986년 원주에서 태어난 손열음은 만 3살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피아니스트가 거치는 예술중학교도 거치지 않은 평범한 소녀 손열음은 해외 유학 경험 없이 1997년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수상의 영광을 일궈내 우리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피아니스트 김대진은 손열음이 11살 때부터 직접 지도를 했고 고향 원주여중을 졸업하던 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영재로 수석 입학했다.

손열음의 수상 경력은 화려하다. 1997년 국제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의 최연소 2위 입상을 발판으로 1999년 오벌린 국제 콩쿠르, 2000년 에틀링겐 국제 콩쿠르, 2002년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최연소 1위로 입상하였고 2005년에는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지난 10년은 그저 초석일 뿐이지만 나름대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제가 그동안 사사했던 선생님들과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그를 가장 흥분시킨 연주는 무엇일까.

2004년 손열음은 금호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의 일환으로 방한한 뉴욕 필하모닉의 아시아 투어에서 로린 마젤의 지휘로 서울, 대전, 그리고 동경에서 협연하여 극찬을 받았다.

서울시향과 부산시향, 부천시향, 원주시향 등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과도 협연한 손열음은 매 연주마다 환호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언제나 가장 최근의 연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음악가라면 무대의 규모나 종류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연주에 똑같은 힘을 쏟아 부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10월 10일과 12일 독일에서 연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한 연주가 2005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산 청중들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열성적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앵콜을 두곡이나 연주했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광승 선생님과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 중에 부산 출신이 많아서 부산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현재 독일 하노버국립음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손열음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고, 독일음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독일 생활을 좋아한다.

손열음은 그를 흥분시킨 많은 음악가 중 특히 모차르트를 좋아한다. 2006년에는 한달 간 모차르트를 몰아치기도 했다.

“모차르트는 ‘천상의 음악’ 이에요. 신(神)이 천상의 음악을 들어보라고 내려 보낸 사람 같아요”라며 모차르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선택했다.

“지난 번 부산에서 연주한 곡 역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가장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베토벤의 가장 큰 특성으로는 누가 뭐래도 제일 먼저 ‘인본주의’를 들 수 있겠죠, 아직은 전형적인 귀족

사회이던 당시의 환경에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늘 앞장 서서 싸웠습니다. 예술은 가장 큰 혁명이라 생각했기에 사회의 불평등에 먼저 반기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점은 그가 그것을 늘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협주곡이야말로 그 양극단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황제’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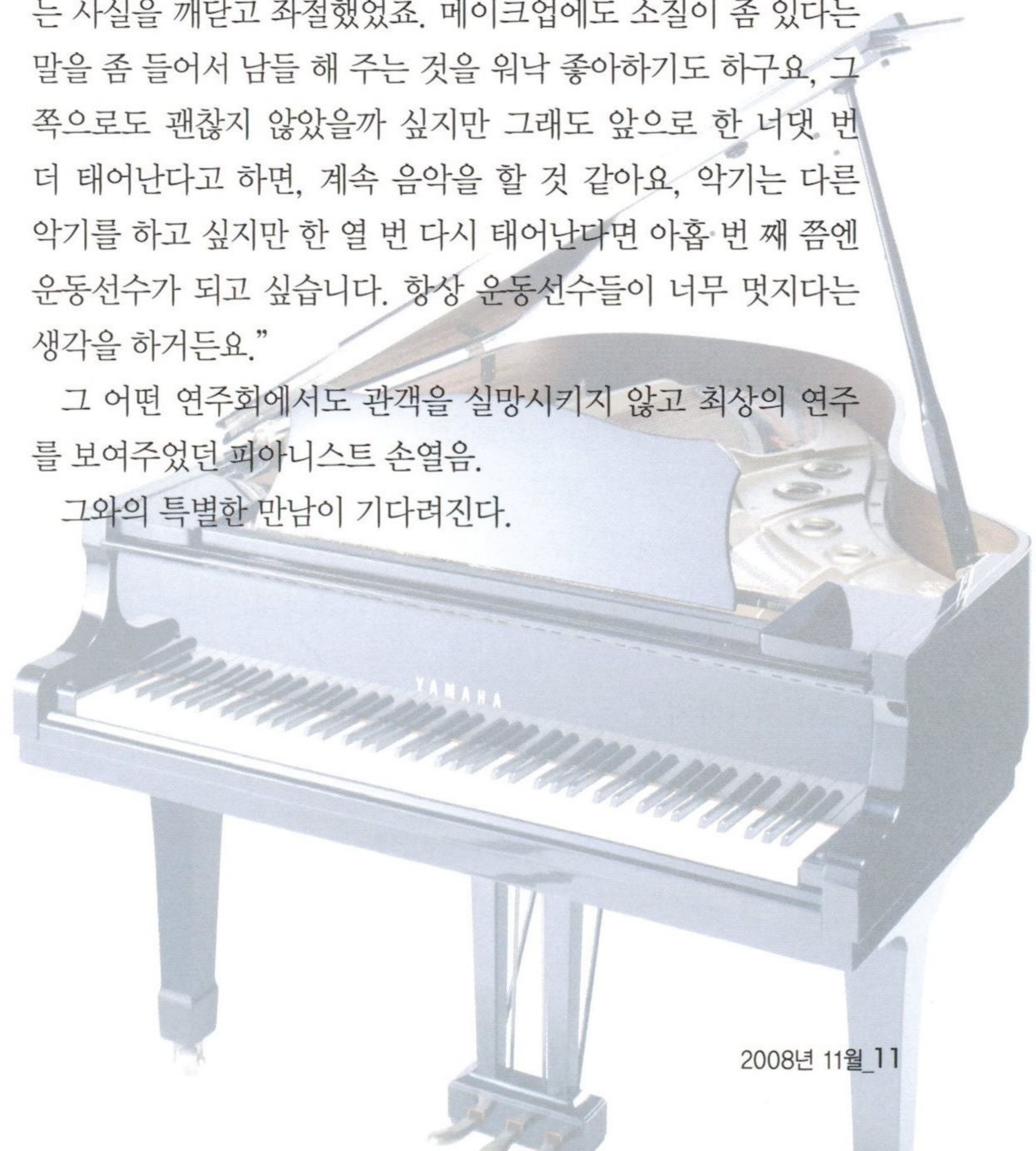
부산연주회 외에 올 한 해 남은 기간은 한국에서 연주일정이 많이 잡혀있다. 10월 23일 광주에서의 연주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울산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과, 25일은 원주에서 독주회, 12월 2일에는 독일에서 연주회, 12월에는 16일 군포에서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과 연주, 19일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연주, 내년 1월에는 부천시립교향악단과의 신년음악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사이사이 손열음이 속해 있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의 공연이 11월 7일 통영에서, 12월 26일에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손열음이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음악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굳이 택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학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하려면 내가 못 하는 수학, 과학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었죠. 메이크업에도 소질이 좀 있다는 말을 좀 들어서 남들 해 주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구요, 그 쪽으로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너댓 번 더 태어난다고 하면, 계속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악기는 다른 악기를 하고 싶지만 한 열 번 다시 태어난다면 아홉 번째 째 째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운동선수들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연주회에서도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고 최상의 연주를 보여주었던 피아니스트 손열음.

그와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詩와 가을, 가을이야기

최진희의 노래가 있는

-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박호성



김상훈



황의중



최진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1월 4일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2008년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로 '詩와 가을, 최진희의 노래가 있는 가을 이야기'를 펼친다.

가을의 낭만을 전해줄

이번 무대는 세련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봉을 잡고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장 황의중 교수의 진행으로 가을을 물들이는 시와 노래들이 우리가락과 함께 펼쳐진다. 가을빛 묻어나는 이번 국악여행을 위해 김상훈 시인, 손계정 시인, 김수우 시인의 시낭송, 부산시립합창단 최영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 정선희의 노래, 대중가수 최진희의 노래로 가을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려준다.

첫 무대는 잊혀져 가는 가을을 떠올리는 백규진의 창작관현악 '가을의 기억'으로 연다. '가을의 기억'은 추억 속 그 가을의 기억을 떠올리고자 찾았던 곳, 지나간 날들과 그 가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지난 가을의 상념을 음악에 담았다.

'가을의 기억'에 이어 부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 손계정, 김수우 시인의 구수한 시낭송을 국악관현악 선율로 들려준다. 자작시 낭송 CD를 출판한 바 있는 손계정 시인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신인상, '시의나라' 신인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일보사 주필과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김상훈 시인은 현재 아·태 정경 연구소,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퇴계학 부산 연구원 원장, 동의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시와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수우 시인은 시집 '길의 길' '당신의 용이에 웃을 건다' '붉은 사하라', 사진에세이집 '하늘이 보이는 쪽창' '지붕 밑 푸른 바다' '아름다운 자연 가족'을 발표했다. 이번 무대에서 손계정 시인은 '별 헤는 밤' '문열어라', 김수우 시인은 자작시 '하늘우체국' '사랑을 기억한다'를 낭송한다.

'시가 노래되다'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시에 황의중 교수가 우리 가락으로 옷을 입힌 역새풀(도종환 詩), 내 마음을 아시리(김영랑 詩), 바람처럼 떠나야지(김상훈 詩)를 들려준다. 특히 '역새풀'과 '내 마음을 아시리'는 작곡자인 황의중교수가 직접 노래하고 '바람처럼 떠나야지'는 김상훈 시인의 시낭송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박성희, 정선희의 노래로 시와 곡의 이해를 높여준다. 마지막 무대는 대중가수 최진희가 그의 히트곡 '여정' '천상재회' 등으로 가을을 물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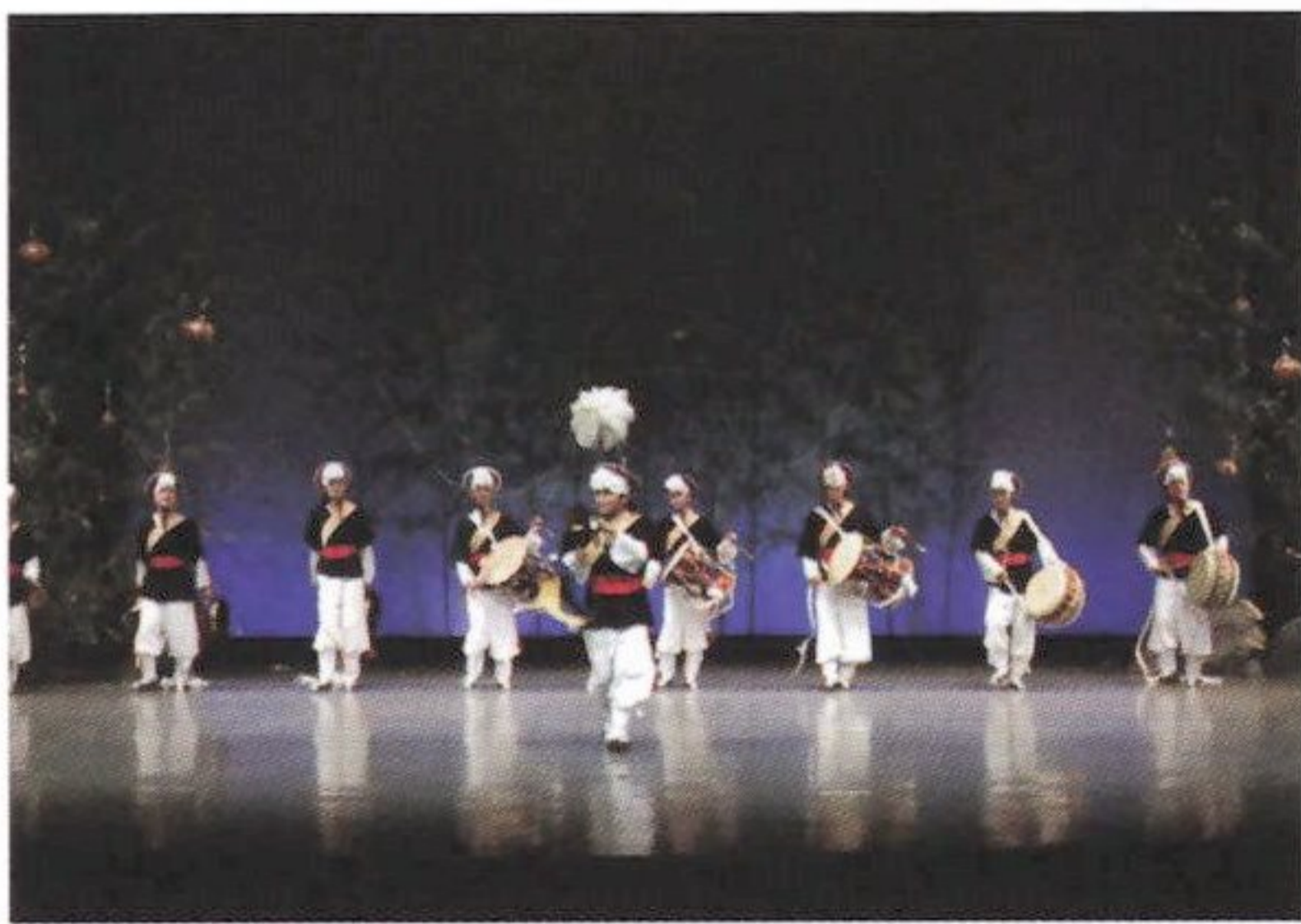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됩니다.)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8 부산국제합창제 축하 전야 음악회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2회 정기연주회 **월드 코랄 환타지 인 부산**

-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버슴새예술단



비보이 : TIP

부산국제합창제 개막일인 11월 12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13개국 40개 합창단을 환영하는 축하무대를 갖는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국악인 김영임을 비롯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윤연수, B-boy: TIP, 부산버슴새 예술단, 춤판 배김새와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국내 및 외국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연합합

창단이 참가하는 이번 무대는 서곡 세계평화를 위한 관현악 '떠나가는 배'를 시작으로 인류화합을 위한 부산국제합창제 연합합창과 관현악, 김영임이 들려주는 민요와 관현악, B-boy 세계챔피언 'TIP(Teamwork is Perfect)'와 풍물의 퍼포먼스를 위한 관현악 '상쇠', 동서양 음악의 어울림을 위한 부산국제합창제 연합합창과 관현악 '천둥소리' 등 한국의 정서와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화합의 선율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부산을 찾는 소리꾼 김영임은 '효' 콘서트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인이다. 김영임은 1부 무대에서 가락 가락마다 황해도 어민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박범훈 曲 창과 관현악 '나나니'를, 2부에서는 맑고 깨끗하고 경쾌한 경기민요 '해주아리랑, 경북궁타령,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로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린다.

2부 무대는 김영임 외에도 B-boy 세계챔피언 'TIP(Teamwork is Perfect)'이 비보이와 풍물의 퍼포먼스를 위한 최상화 曲 관현악 '상쇠'로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1996년 결성된 B-boy TIP(Teamwork Is Perfect)은 프랑스 배틀 디 매쉬 한국대표로 우승하고 중국(상해, 심천, 북경), 대만, 홍콩,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공연을 가진 최강팀이다. 한국적인 비보이라고 할 수 있는 풍물패 '버슴새'와 비보이와의 만남은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세계 합창인들에게도 기대가 큰 무대이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연합합창단과 부산의 춤패 배김새가 동서양 음악의 어울림을 위한 관현악 '천둥소리'로 축하무대를 빛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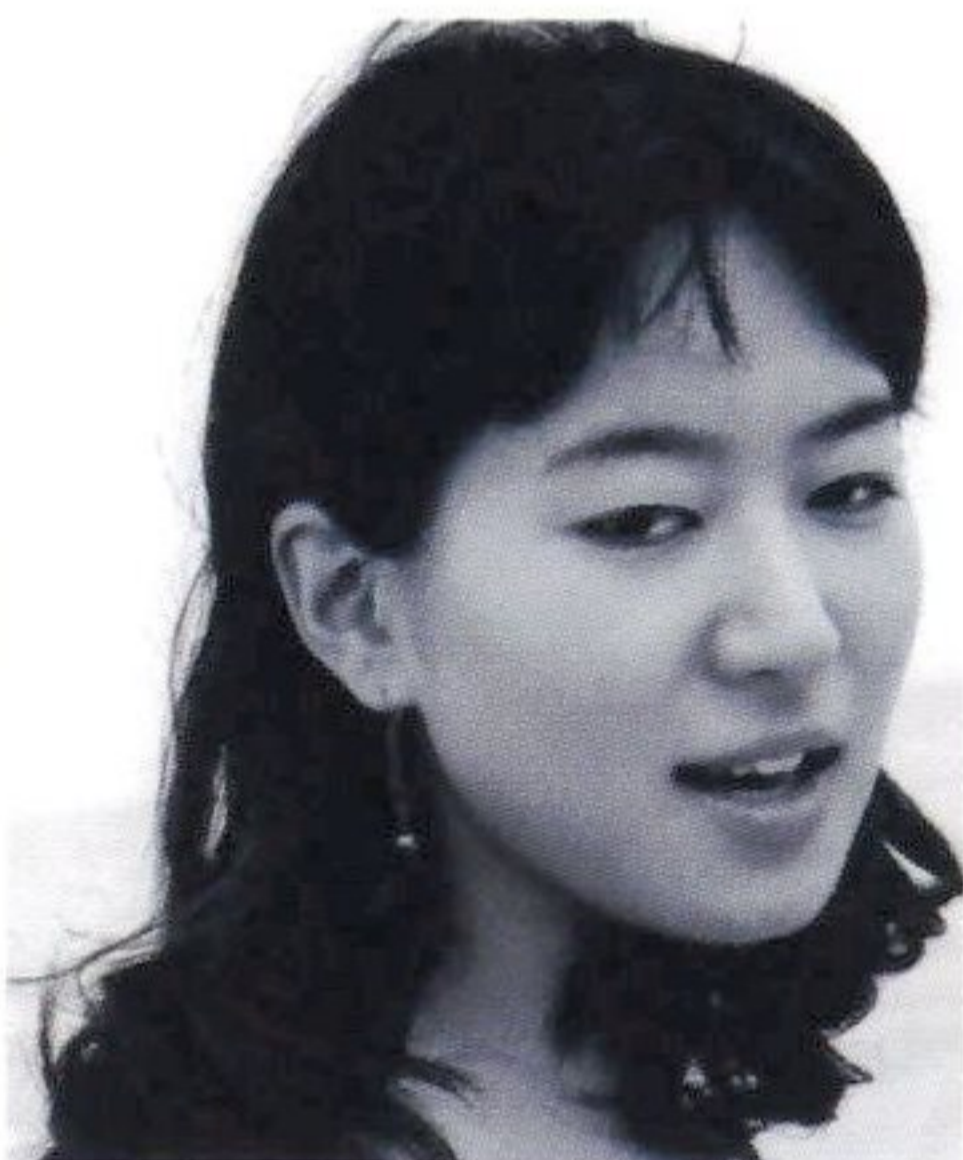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가을의 낭만과 11시에 만나요!

-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최선용



김가영



류재환



오윤주



최훈녀

전국을 화려한 클래식 선율에 젖게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열기만큼 드라마에서 연주되는 클래식 곡들에 관심이 높다. 여유로운 오전시간 가을의 서정이 넘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이 11월 21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전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지휘자 최선용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가영,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피아니스트 오윤주, 소프라노 최훈녀가 오전시간 귀에 익은 클래식 명곡으로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을 펼친다.

지휘자 최선용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프렌치 혼 주자를 역임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을 지낸 오페라계의 거장 미크로스 에르테이에게서 오페라, 오라토리오 전문지휘를 사사했다. 정통 오페라 지휘의 계보를 잇는 최선용은 오페라, 발레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아트오케스트라를 창단,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지젤' '세레나데' 등의 발레 연주를 지휘했고 특히 발레 '백조의 호수' 일본 순회연주를 통해 정통 발레음악 지휘자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브루흐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를 들려줄 비올리스트 김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Mannes 음대 대학원과 Rowan University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보이스트 류재환은 영화음악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엔리코 모리코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려준다. 이 곡은 소프라노 최훈녀가 가브리엘의 오보에 성악 버전 '넬라 환타지아'를 이어서 연주, 새로운 느낌의 무대를 선사한다. Francesco Vinas 국제 콩쿠르, Carl Orff 콩쿠르, Schubert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최훈녀는 유럽 주요성당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작곡가의 의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연주자란 평을 들은 바 있다.

피아니스트 오윤주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을 들려준다. 이 곡은 작곡 당시 쇼팽이 바르샤바 음악학교 학생인 콘스탄티아를 연모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뜻하게 묻어나는 곡이다. 20세의 나이에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오윤주는 뷔르츠부르크 음악협회 주최 피아노 콩쿠르, 이태리 Marsala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으로 주목 받았다.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됩니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4회 정기연주회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 신차오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와 같은 중국 내의 모든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한 젊은 현역 지휘자 '리 신차오'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재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4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자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1993년 제1회 국립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리 신차오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며,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로미오와 줄리엣' '홍색낭자군' 등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레

오폴트 하거 교수의 초청으로 비엔나 음악대학의 고급 과정을 공부한 리 신차오는 1999년 귀국, 중국 국립 교향악단(CNSO) 상임지휘자와 중국 국립 가극장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었다. 로스트로포비치와의 공연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휘자, 신은 그에게 재능을 주었다"는 찬사를 듣기도 한 리신차오는 중국의 현대 음악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작품에 있어 더욱 탁월한 감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깊이 있는 음악성과 탄탄한 테크닉, 진지한 탐구력을 바탕으로 음악계의 신진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한 손열음은 1998년 7월 금호문화재단(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음악계에 데뷔하였다.

1997년 국제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의 최연소 2위 입상을 발판으로 1999년 오벌린 국제 콩쿠르, 2000년 에틀링겐 국제 콩쿠르, 2002년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최연소 1위로 입상한 손열음은 2005년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실내악 연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그녀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멤버의 일원으로 가장 촉망받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과 정기적으로 국내외 무대에 서고 있다. 손열음은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문화적 감성부문 대상, 음악협회 '2003년 올해의 신인상', 2004년 '금호음악인상'의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손열음은 만 16세에 영재 입학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 사사로 졸업 후,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손열음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황제'로 1부 무대를 연다. '황제'는 로망 롤랑이 '결작의 숲'이라고 부른 만큼 베토벤 제2기의 정점을 형성한 명곡이다. 2부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유분방한 기법으로 자신 있게 쓴 야심작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들려준다. 슈만이 이 곡을 '최고의 교향시'라고 극찬했을 만큼 스케일이 웅대하다. 전체적으로 극적 흥분이 감돌고 있으며, 아울러 행복을 찬미하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휘영청 창문미 밝아보노

- 가곡 '달밤' 과 나운영 -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누군가 말없이 울고 갔을 풀섶 길에
설움은 사무치게 몇 구비 여울지고
흰 달빛 흐느끼 젖어 울먹이는 가을밤

빈 가슴 에이도록 괴안어온 긴 사연을
나나(裸裸)히 되새기면 다시 멎어 도는 회한(悔恨)
수정(水晶)빛 체념(諦念)을 엮어 풀어보는 긴 오열(嗚咽)

서리 먹은 찬 하늘엔 안여(雁旅)의 여원 울음
소슬한 바람결에 갈대꽃 흩날리면
귀뚜라 울음에 젖어 돌아앉는 산(山)마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쓴 '실술(蟋蟀), 귀뚜라미' 라는 저의 졸작 한편이다.

시조(時調)라는 제한된 형식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욕심을 부린 흔적이 많아 지금 와서 봐도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가을밤 온누리는 달빛에 흐느끼 젖어 있고, 풀섶에서는 귀뚜라미가 영절스레 울고 있다. 그 소리는 “수정 빛 체념을 엮어서 풀어보는 긴 흐느낌이” 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때의 적막(寂漠)은 그냥 적막이 아니라 영적(靈寂)이라고 표현해야할 적막이며, 이때의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고절(孤絶)이라고 표현해야만 될 외로움일 것이다.

작곡은 된 바 없지만 시조 작품을 가창(歌唱)으로 하고 싶을 때는 흥난파곡 <성불사> 나 <옛동산에 올라>에 대입하면 된다.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으오
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달은 어여쁜 선녀같이
내 뜰 위에 찾아오다
달아 내 사랑아
내 그대와 함께
이 한밤을, 이 한밤을
얘기하고 싶구나.

어디서 흐르는 단소(短簫)소리
처량타 달 밝은 밤이오
솔바람 선선한 이 밤에
달은 외로운 길손 같이
또 어디로 가려는고
달아 내 사랑아
내 그대와 함께
이 한밤을, 이 한밤을
동행하고 싶구나”

김태오 작시, 나운영 작곡의 <달밤>이다. 달을 소재로 한 가곡은 박목월 작시, 한만섭 작곡의 <달무리>를 비롯해서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애창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달밤>이 아닌가 한다.

휘영청 달 밝은 밤 멀리서 단소 소리 은은히 들려오고 솔바람 선선하게 부는 데 나는 그대와 함께 밤을 새워 얘기하고, 밤을 새워 동행하고 싶다. 그런데 달, 그대는 외로운 길손이 되어 날 모른 채 밀쳐두고 어디론가 쉬지 않고 가고 있구나 하는 내용이다. 달밤의 외로움, 달밤의 쓸쓸함, 달밤의 적막함을 잘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겠다.

작시자 김태오 선생은 우리나라 현대 문학초기에 활동한 시인이며, 수필가며, 아동문학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교육현장에서 2세들을 지도하신 원로 교육자였다.

작곡자 나운영(羅運榮)선생은 본란에 간략하게 한번 소개된 바 있다. 그는 1922년생으로 1939년 중앙 고보재학시 18세의 나이로 동아일보사 주최 신춘문예한상 모집에서 가곡 <가려나>를 당선작으로 내보낼 만큼 음악적 감수성이 뛰어났다. 이 곡은 답답하고 고아한 선율의 진행으로 이탈리아 고전파의 작품

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젊은날의 순정을 아로 새긴 것이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높은 호소력을 지니고 애창되고 있다.

그가 대중 속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가곡으로는 소월詩에 부친 <가는길>이 있다. 이 곡이 작곡된 1945년경에는 왜색적인 가요나, 저속한 노래들이 범람할 때였으므로 나운영은 민족적인 향수가 짙은 예술가곡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혔다. 그러한 신념아래 의도적으로 작곡한 것이 바로 이곡이라고 한다.

<달밤>은 1946년 작곡한 노래로서 낭만적 분위기가 전편에 깔려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한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흡인력을 지닌다. 그는 해방되던 해에 엘토 유경손과 결혼했고, 이 곡이 해방 2년 뒤에 작곡된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 사랑의 송가(頌歌)로 바친 노래가 아닌가 짐작케 한다.

“내 그대와 함께 이 한밤을// 이 한밤을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구절은 바로 그러한 사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뒤 그는 <강 건너간 노래(1949)><별과 새에게(1949)><접동새(1950)> 등 뛰어난 가곡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의 작품 <접동새>는 한국 현대가곡의 지표(指標)로 삼을 수 있는 야심작이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작가 자신도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큼 애착을 가졌다.

한편 그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다. 시편 46편의 <피난처 있으니>와 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등은 6·25 동란 때 부산 피난처에서 작곡한 것으로, 당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시련과 고통이 심했을 때 신앙에 의지한 경건함이 충만해 있는 작품이다. 특히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肅然)케 하는 간절한 기원(祈願)과 소망(所望)의 노래였다.

이 곡은 일본, 중국,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번역이 되어 불려지면서 극찬을 받았으나 작곡가 자신은 “나 나운영의 곡이 아니라 신이 주신 곡”이라고 하면서 겸양을 다하였다.

아름다운 시에 아름다운 곡을 부쳐준 많은 작곡가들로 하여금 시(詩)는 금빛 날개를 얻어 천공(天空)을 누비며 영원히 훨훨 날고 있다고 하겠다.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으오”

어디서 지금 막 <달밤>이 들려 올 듯 하다.

작은 Paris 큰 Paris

이 재 걸 | 소르본대학교 예술사 전공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Paris의 아침은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이른 새벽 구워지는 크로와상과 바게트의 고소한 내음으로 시작한다. 아침 일찍 일상을 시작하는 파리지앵들을 위해 서둘러 문을 열어놓은 부지런한 노천카페들에서는 제법 차가워진 바람 사이를 가르며 또 하나의 반가운 내음이 풍겨 나오는데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향이다.

밤사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리에서 에스프레소는 파리지앵들의 몸을 덮혀주고 힘든 일상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용기라도 주려는 듯 그 작은 잔 속에서도 진한 향을 잃지 않는다. 그 진한 향과 맛이 못내 부담스러운 이들도 있겠으나 여전히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며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아슬하게 겨우 잡히는 작은 잔에 담긴 그 모습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에스프레소는 그래서 Paris를 닮았다. 큰 머그컵 안에서의 커피는 당연히 연해지고 빨리 식어버리듯이 Paris는 작지만 진하고 긴 여운을 품은 향을 담고 있다. 사실 Paris를 방문하는 이방인들은 그 작은 크기에 일단 놀라곤 한다. Paris는 서울의 육분의 일 크기이며 그 유명한 센스강의 폭은 한강 폭에 비교되지 않으며 노트르담 성당으로 대표되는 시테섬의 면적은 여의도의 십분의 일에 그칠 뿐이다.



시테섬과 센스강 좌안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

하지만 그 작은 규모 안에서 상제리제의 화려함은 더욱 돋보이고 에펠탑은 더욱 높아보이며 루브르는 더욱 웅장해 보임은 어찌면 당연한게 아닐까.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드는 복잡하고 조밀한 Paris의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감추어지기 보다 드러나 지고, 그들의 다양한 개성은 조화롭게 어울리며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Paris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아마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시테섬

거리에 주차된 소형차들



그리고 보니 Paris안 거의 모든 것들이 작음의 미학을 실천하는 듯하다. 지하철은 작고 베스트셀러 차들은 모두 소형이며 작은 스쿠터로 출근하는 정장차림의 직장인들과 작고 비좁은 스튜디오에 살면서 큰 꿈을 꾸고 있을 세계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있으며 배고프지만 양보다 질로 메뉴를 선택하는 파리지앵들의 여유도 있다. 또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은 타국가 원수에 비해 월등히 작은 자국산 차를 타면서 군림하지 않고 큰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 한다는 상징을 잊지 않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Paris 곳곳의 수많은 도서관에서는 학생 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또한 백년전 할머니의 할머니가 쓰던 작은 찻잔들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옛 것에 대한 진지한 배려도 살아있다.

Paris 4구에 위치한 Forney 예술전문 도서관과 그 정원



그런 이유로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전통과 소박한 것들에 대한 애정이 기본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크고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는 '과시하는 문화'에서 작고 개인적인 역사들은 소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른 서부 유럽 국가처럼 프랑스에서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작은 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관심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에 적용되어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화석에너지의 남용에 대응한 태양열과 풍력 등 환경 친화적인 '작은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CO2를 배출하는 대형차에는 Malus(패널티에 따른 부담금)를, 그 반대의 친환경적 소형차에는 Bonus를 주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기본의 의무를 지게 한다. 앞의 경우와 같은 환경보호정책들은 산업활동과 소비시장을 한동안 위축시킬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지구의 '건강상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프랑스 정부측의 의지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수많은 환경보호 정책은 더 이상 녹색당(le parti vert)만의 정치구호는 아니다.

Lyon시에 이어 Paris시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한다는 푸른 Paris의 또 하나의 상징



이제 이러한 '작은 것'들이 병든 지구의 효과적인 '보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크고 화려하며 돋보여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거창한 한 사회에서, 작지만 소중한 개별(individu)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배려하는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작지만 단단하고 진한 향을 품은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 남아 그 곰삭은 맛이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생동감으로 넘치는 곳이야 말로 진정 '크고 위대한 사회'가 아닐까?

뒷산의 반을 툭 잘라 조성해 놓은 인공폭포가 흐르는 시민공원보다는 자연 그대로 잘 관리해 주며 그 곳에 힘든 일상의 짧은 심포가 될 수 있을 작은 나무 의자라도 하나 놓아 주는 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다시 시월 Paris의 한 노천카페로 돌아온다.

손에는 작은 에스프레소 한 잔이 습관처럼 쥐어져 있고 가난하지만 거금(?)을 들여 산 신문을 읽다가 반가운 소식이 눈에 띈다. 바로 <사막 Desert>(1980)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르클레지오의 수상 소식이다. 한국에서 강의도 했으며 한국영화와 김치를 무척 사랑하는 소탈한 그의 수상 소식에 마치 잘 아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내가 한국인이어서 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과 시적모험으로 넘치는 그의 작품세계보다 갑자기 곧 김장을 준비하실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찡해 오는 건 가을 오후 Paris의 찬 바람과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노천카페와 작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메트로1호선, Palais royal역 출입구.
작지만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동감있는 거리 풍경을 연출한다.

우리나라 고판화

선과 면이 꾸미는 우리 만의 맛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작업하면서 항상 피부에 와 닿는 건 판화의 특성상 조형적 감각만큼이나 기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현대판화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도입으로 급격히 폭넓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그 기법의 이해와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고 작가로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몇 차례 국제전을 기획하면서 수준 높은 세계현대판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외국작가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국현대판화가 현대화의 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새로움에 도전하고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적 원동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가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점들에 무관심한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현상 중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문화재 훼손을 들 수 있는데 오륜행실도의 목판 원본이 그 산 증거다.

오륜행실도는 활자본은 현존하지만 목판 원본은 일제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어 목판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6년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오륜행실도의 목판 4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 왕십리 일본인 가옥에서 발견되어 우연히 시중에 흘러나온 목판은 일본식 사각화로(이로리)의 바깥 장식 용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목판의 가운데 부분이 두 쪽으로 나뉜 채 4각으로 엮어 오륜체라고 하는 오륜행실도의 한글 부분에 부채모양으로 손잡이 구멍이 파여지고 그을음 등 실



〈사략편〉 목판상자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목판화로상자

제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예사와 판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일본 호사가들에 의해 완상용(玩賞用)으로 바뀌었던 그 실물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참으로 참담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목판제작에 있어서 종주국임을 자부해도 좋을 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最古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제작년대 750~751년경 추정)〉, 경전에 삽입하여 그 경전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도해한 〈불교변상도(佛敎變相圖)〉, 그리고 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삼강(三綱)〉, 〈이륜(二倫)〉,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의 유교 관련 판화 등...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지는 부분들이다.

우리나라 고판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판화의 판종 중 목판이 그 주류를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소박한 전통한지와 나무, 칼 맛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

이라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해 있는 닥나무를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내구성과 함께 보온·보습의 효과가 뛰어나고, 색조 또한 맑고 투명하고 자연색에 가까워 목판화의 제작에 오래전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그리고 단일 판화보다 책에 삽입되는, 소위 전적판화(典籍版畫)가 많은데 이는 순수 감상용보다 민중의 계몽·계도를 위한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목판화는 신라를 비롯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는 승려들이 판각, 제지, 목즙의 제조기술까지 보유하여 사찰용 목판을 스스로 제작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면, 조선시대는 관·민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작되고 판화기법이 민간에까지 퍼져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앞선다. 조선시대 서책

목판화는 서책 및 경전의 본문을 보충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의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글의 보조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문의 사진처럼 글보다 먼저 독자에게 전달되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세종 때 발간한 <삼강행실도>는 <오륜행실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대중화된 윤리도덕 교과서로서 최초로 주제를 가지고 발간된 판화집이다. 당시 유명화가인 안견(安堅)·최경(崔涇)·안귀생(安貴生) 등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대선사 홍희 이하 20명의 승려와 민간인 등 총 109명이 각수(刻手)로 참여하였는데 이를 보면 당시에 판각 전문가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광해군 때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효자도 650여점, 충신도 100여점, 열녀도 650여점, 기타 100여점 등 무려 1,500여점에 이르는 대작으로 화사(畫師) 김수운 등 8명이 삽화를 그리고 전라, 경상, 충청, 황해, 평안 5도에서 나누어 제작하였다.

정조 때 김홍도 화풍을 받은 문인화가이자 실학자인 박제가 등이 발간을 맡아 간행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무예의 주요 동작을 생동감 있게 상세히 표현하는 등 회화적 특성이 돋보이며, <오륜행실도>나 용주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삽화에서는 당대 대표적 화가 김홍도의 필치를 엿볼 수 있는데 그의 화풍은 조선의 판화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남긴 빛나는 문화유산 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는 <의궤(儀軌)>를 꼽을 수 있다. 1795년 간행된 <원행음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는 정조가 그의 부친 사도세자 묘소가 있는 현릉원에 행차한 내용을 적은 책으로 여기에 수록한 궁중예식과 국왕의 행렬하는 모습을 그린 <반차도(班次圖)>는 조선시대 최대의 판화 걸작이다. 또 <화



용주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오륜행실도 열녀편 미처개도>
복각본(철종본)

<미처개도> 복각본 목판원판

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는 정약용이 수원화성을 짓는 축성계획의 진행과정과 설계도를 수록한 판화집으로 다양한 설계도는 조선시대 판화 중 백미라 할 수 있다. <의궤>를 제작하는 장면은 MBC 드라마 <이산>에서 자주 등장해 어찌보면 우리에게 친근한 장면일 듯도 하다.

이렇듯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는 전문가든 아니든 우리나라 고판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만 세계판화의 다변화된 모습 속에서 한국판화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실력만큼은 프로예요”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지난 10월 14일 늦은 8시, (사)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그 어느 때보다 음악적 열기로 넘쳐난

다. (사)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운영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정기모임이 있었던 이 날은 10월 19일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지난 1999년 부산아마추어 스트링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부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거쳐 2006년 지금의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성철 씨의 제자 4~5명에서 출발한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어느새 결성 10년을 맞았고 현재는 아마추어 연주자 40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 대부분이 음악이 좋아 취미로 시작한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2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매주 화요일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사)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들이 교육을 맡아 각 파트별 연습 후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맞춘다. 정기연주회는 매년 두 차례 갖는데, 이번이 벌써 9번째 정기무대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정성철 씨.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배울수록 알게되고 그래서 더욱 더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게 음악이다”며 비록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지만 그 실력면에서 만큼은 프로 연주단체를 지향한다고 한다.

지금의 오케스트라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부쳐졌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해 주로 편곡된 악보로 연습하는 다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오리지널 악보로 연습을 한다.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역시 단원들이 음악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전적인 연주곡과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곡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한다. 9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 40번을 선보였다.

창단 멤버인 김성아 씨는 현재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고 있다. 원래 전공은 피아노였지만, 취미로 시작한 바이올린이 지금 그에게 새로운 음악인생을 열어줬다. 독주악기인 피아노에 비해 바이올린은 다른 사람들과 앙상블을 맞출 수 있어 좋다는 그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단원들과의 앙상블 활동이 즐겁다.

2002년부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은정 씨. 사무실이 다대포라 경성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연습실에 한번 오려면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그가 연습에 빠지는 날은 결코 없다.

“시력이 좋지 않아 최근 교정을 받았는데, 언제 다시 시력이 나빠질지 그게 가장 걱정이다”는 그는 “악보를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바이올린을 놓지 않겠다”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무한한 애정을 표한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음악감독 정성철 씨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그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며 의욕이 넘친다.

시작은 늦었지만 연주실력 만큼은 프로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들에게 음악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문의/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1-9556-1601, 017-842-6688, cafe.daum.net/pusansco)

아르헨티나 III

탱고의 황제 카를로스 가르델

Carlos Gardel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명배우 알 파치노가 노년의 원숙한 매력을 선보였던 영화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에서 탱고 춤을 추는 장면의 배경으로 등장해 유명해졌던 'Por una Cabeza'라는 탱고 명곡이 있다. '머리 하나 차이로'라는 뜻의 이 제목은 국내에서는 흔히 '간발의 차이로'라고 번안되기도 한다. 원곡은 가사가 있는 노래이다. 낭만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선율과는 달리 경마장에서 자신의 돈을 몽땅 건 말이 그야말로 머리 하나 차이로 지는 장면을 보며 사랑의 거짓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많은 탱고 음악가들이 연주해 온 이 곡은 탱고의 황제로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이 직접 작곡해서 불렀던 곡이다. 또한 1935년 영화 'Tango Bar'에서 자신이 주연을 맡으며 노래하기도 했다.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아르헨티나의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액자에 사진을 넣어 두는 3면으로 된 장식물을 차 안에 두고 다니는데,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에바 페론'과 '디에고 마라도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고 한다. 1887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카를로스 가르델'은 네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주해 왔다. 어머니 혼자 그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난 그는 탱고가 막 시작되던 때에 태어나 운명처럼 탱고의 도시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대열에 서 있었던 것이다.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었던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직업을 전전했고, 한 극장에서 막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면서 열렬한 오페라 팬이 된 그는 가수의 꿈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191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엠파이어 극장에서 '카를로스 가르델'이 'Mi Noche Triste(슬픈 나의 밤)'이라는 곡을 노래하면서 탱고의 역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는 탱고의 새로운 형식인 노래하는 탱고, 즉 '땅고 칸씨온(Tango Cancion)'의 시대를 열었다. 탱고라는 음악 속에 담긴 통속적인 감성과 우울함을 가사가 있는 노래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전에도 탱고에 가사가 붙여진 곡이 더러 있었

지만, 카를로스 가르델만큼 탁월하게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수가 없었기 때문에 탱고가 노래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타고난 아름다운 음색과 수려한 외모가 성공의 발판이 되긴 했지만 카를로스 가르델은 자신의 노래와 작곡기법을 향상시키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가수였고, 1935년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백 곡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겼다.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로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도 무덤에는 날마다 새 꽃다발이 놓일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카를로스 가르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20여 년 뒤부터 탱고의 또 다른 시대를 열어나갈 인물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출연했던 마지막 영화인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El Dia Que Me Quieras)'에 어린 '피아졸라'를 출연시켜 반도네온을 연주하게 했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 동안 '피아졸라'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탱고의 첫 번째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음악은 탱고의 전성기를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의 고유한 분위기를 확립했던 그의 활약은 항구의 빈민층을 위한 음악이었던 탱고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탱고는 춤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발전해 나갔다. 또한 밴드의 리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뛰어난 인물들이 대규모 밴드를 이끌며 탱고의 황금기를 열어 갔다. 한편 노래로 표현하는 탱고 음악 '땅고 칸씨온'은 뛰어난 가수들을 배출하며 지금도 탱고의 가장 사랑받는 일부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여성 가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카를로스 가르델'이 세상을 떠나던 해 태어나 탱고 가수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던 '수산나 리날디(Susana Rinaldi)'가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의 대표 주자로는 '아드리아나 바렐라(Adriana Varela)'가 현재 최고의 탱고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늦가을 정취로 가득한 자연휴식공간

경상남도 수목원



가을이 깊어만 가는 요즘, 늦가을 서정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단풍이 절정에 이른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 올 가을에는 온 가족이 손잡고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수목원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부산에서 두시간 정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경상남도수목원(이하 경남수목원), 이 곳 역시 만추의 숲이 뿜어내는 늦가을 정취로 가득 차 있다. 약 17만평 면적에 1,5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박물관과 테마별 전시관을 갖춘 자연생태 종합학습교육장이자 시민들의 나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면 산림박물관이 처음 관람객을 맞는다. 지난 2001년 11월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남부지방 산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전시하는 곳으로, 4개의 전시실과 화석전시실, 자연표본실, 생태체험실, 산림체험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한 줄로 줄지어선 십이지(十二支)상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십이지상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박찬수씨의 작품으로, 십이지상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목재를 사용해 조각되었다. 2층 전시관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 주위에는 수령 800년이 넘는 소나무 상징목과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팽나무 상징목, 그리고 2002년 식목일에 발표된 '산림현장'을 양각으로 서



각한 느티나무 상징목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간이의자는 국내외 주요 목재 40종으로 제작되어 잠깐 쉬어가면서도 주요 수목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놓고 있다.

2층 전시관에는 산림 생성의 기원에서부터 기후대별 식물표본, 목재의 가공, 우포의 자연, 천연기념물, 허준의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약용식물, 목재 민속품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 선캄브리아대에서부터 신생대까지 지질시대별 화석종류를 통해 5억년 지구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석전시실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류와 조류, 짐승류의 박제 표본, 그리고 암석, 식물표본을 전시하는 자연표본실이 마련되어 있다. 숲속을 걸으며 동물의 소리, 별자리, 자연의 소리와 숲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실과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산림체험학습실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쉽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산림박물관에서 산림의 어제와 오늘을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마음껏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차례. 사계절 서로 다른 색깔을 만날 수 있는 수목원에는 전문수목원 8곳과 열대식물원, 생태온실, 선인장원, 무궁화공원, 민속식물원, 야생동물원 등이 구성되어 있다. 전문수목원은 다시 침엽수원, 활엽수원, 수종식별원, 수생식물원, 허브·토피아리원, 장미·철쭉원, 화목원, 생태원으로 분류되어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형온실로 시선을 사로잡는 열대식물원은 300여종의 희귀한 열대, 아열대 식물이 구성되어 자연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색색깔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숲속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곳으로, 사슴, 너구리, 청둥오리 등 약 50종 47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직접 볼 수 있다.

■ 문의/경상남도수목원 ☎ 055-771-6541, www.gntree.go.kr





김상훈 황의중 최진희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웰빙콘서트 詩와 가을, 최진희의 노래가 있는 가을이야기

중극장 |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1:00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여유로운 오전 시간 음악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8년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

가을의 낭만을 전해줄 이번 무대는 세련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봉을 잡고 부산대학교 황의중 교수의 진행으로 가을을 물들이는 시와 노래들이 우리가락과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 백규진/창작관현악 '가을의 기억'
- 진규영/시와 low-voice를 위한 창작관현악 '문열어라'
- 시낭송/하늘우체국, 사랑을 기억한다(김수우 詩)
- 황의중/역새풀, 내 마음을 아시리, 바람처럼 떠나야지 등 수곡
- 지휘/박호성 · 진행, 노래/황의중
- 시낭송/김상훈, 손계정, 김수우 · 노래/최영수(베이스), 박성희, 정선희, 최진희(대중가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제 9회 동의대학교 학점은행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1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동의대학교 학점은행 음악학과 재학생들의 발표 무대로 실용음악과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합창지휘/이상철(지도교수/박윤규)
- 오케스트라 지휘/손명균
- 특별출연/테너 이승우, 소프라노 이민희

관람료 초대

문 의 동의대학교(890-2412)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테마독주회 II 러시아의 추억 Souvenirs from Russia

11월 2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지난해 첫 번째 테마연주 '열정과 집시 Passion & Gipsy'에 이어 갖는 이라희의 두 번째 테마연주회. 이라희는 2004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현재 신라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 쇼스타코비치/10프렐류드
- 차이코프스키/스케르췌, 왈츠 스케르췌, '멜로디'

프롤로프/블루스, 포기와 베스 환타지 등 수곡

· 피아노/유영욱

관람료 초대

문 의 이라희(010-4064-7040)

제 16회 휴피리 정기연주회 바람이 되는 꿈...

11월 2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청소년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나 동호회 '휴피리'가 들려주는 제 1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사랑안해, 거위의 꿈, 별밤의 피아니스트, 숲속의 오솔길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 의 박철현(010-8392-1202)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 제 16회 정기연주회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 1993년 창단하여 현재 초등학교 교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소리테 플루트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 모차르트/세레나데 사장조 K.v 525, 아이네 크라이네 나흐트 뮤직

쇼스타코비치/왈츠 제 2번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서곡 등 수곡

- 협연/박병진(테너), 이주연(피아노), 김경린(플룻)



제 22회 부산합창제

대극장 | 11월 6일-8일 목-토요일 오후 7:30

부산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합창이 흐르는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기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19개 합창단이 한자리에 펼쳐는 부산합창제.

■ 참가단체

| 6일(목) |

- 진각종유가(지휘/이순희)
- 영주암합창단(지휘/백규진)
- 바다, 그리고 구름 여성합창단(지휘/이창균)
- 동부경찰서 은행나무합창단(지휘/권수정)
- 부산챔버싱어즈(지휘/김현식)
- 해운대문화합창단(지휘/배천종)
-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 7일(금) |

- 미리내여성합창단(지휘/이홍길)
- 동래구옥샘여성합창단(지휘/이성훈)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지휘/이연화)

단비울남성앙상블(지휘/강종철)

해운대구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소리여성합창단(지휘/김진영)

드림선교(지휘/김정환)

| 8일(토) |

CBS여성성가대(지휘/이외균)

글로벌콰이어(지휘/이정철)

동구여성합창단(지휘/이광신)

부산교사합창단(지휘/박운호)

북구가람여성합창단(지휘/강재석)

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관람료 초대
문 의 이경희(010-5580-7824)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길.들.여.진.토끼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우리 고전의 재해석,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무대를 열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제 59회 정기공연.

토끼의 상징들과 여러 정황에 비유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청소년기 부터 사회에 편입하는 청년기, 그리고 중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현재의 시점들을 시차적으로 엮었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조주현 · 작곡/임진영
- 솔리스트/김기원, 서정숙(총무), 김미란, 최의옥, 강모세, 김동숙(부수석)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www.koreanfolkdance.com)

제 12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계면조를 즐기고, 우조와 강산제를 많이 끌어들이 호쾌하고 온화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정기 발표회.

프로그램

동래 줄풍류
가야금제주/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들강변, 양산도, 태평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등 수곡

출연

김혜진(전수조교), 오해향(이수자), 김세정(이수자), 차선민(이수자), 황남은(이수자), 구환석(이수자)

관람료 무료

문 의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김지영(011-9234-9638)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3회 원로음악회

11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원로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홍윤신, 바수니스트 김태운 등으로 구성된 부산목관 5중주, 원로 작곡가 하오주, 김동조,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첼리스트 배종구, 동의대학교 교수 백재진으로 결성된 부산피아노3중주단 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오주/나는 바위, 새벽등
김동조/무반주 클라리넷을 위한 단편집 제 2번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전이동(010-2705-0366)



이동신 오현정 이은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폴란드 음악의 밤

중극장 |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프랑스, 미국의 근대 음악, 러시아의 근대음악 등 주요 국가별 작품들을 선정, 시리즈를 열어 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세 번째 무대 폴란드음악의 밤으로 고전적인 작품에 폴란드적인 색채를 가미한 쇼팽, 모뉴시코, 비에냐프스키 작품들을 통해 폴란드 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에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
-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작품 21
- 모뉴시코/교향시 ‘바이카’
- 비에냐프스키/‘전설’ 사단조 작품 17
- 무소르그스카-림스키코르사코프/‘보리스 고두노프’ 중 ‘폴로네즈’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오현정(피아니스트), 이은옥(바이올리니스트)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1~4, 6108)



박호성 김영임

2008 부산국제합창제 축하 전야 음악회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2회 정기연주회 ‘월드 코랄 환타지 인 부산’

대극장 |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13개국 40개 합창단을 환영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축하무대 ‘월드 코랄환타지 인 부산’.

국악인 김영임을 비롯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윤연수, B-boy: TIP, 부산버숨새 예술단, 춤판 배김새와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국내 및 외국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참가하여 한국의 정서와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화합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지원석/세계평화를 위한 관현악 ‘떠나가는 배’
- 김희조/김영임의 민요와 관현악 ‘해주아리랑, 경북궁타령,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 최상화/B-boy 세계챔피언과 풍물의 퍼포먼스를 위한 관현악 ‘상쇠’
- 박범훈/동서양 음악의 어울림을 위한 ‘천둥소리’ 등 수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출연/김영임(창, 민요), 윤연수(동요),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연합합창단, B-boy TIP, 부산버숨새 예술단, 춤판 배김새, 뉴 프라임오케스트라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2008 부산국제합창제

대극장
중극장

11월 12일-15일 수-토요일

세계 각국 20개 합창단과 대한민국 20개 합창단 등 총 1400여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하는 2008 부산국제합창제.

12일 개막 축하연주를 시작으로 경연대회, 갈라 콘서트, 만남의 콘서트 등 부산시내 곳곳에서 합창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특히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합창단들이 부르는 자국의 민속곡 합창과 미국 대학 합창단의 혼성합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대만 등지의 실력있는 아시아 합창단들의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부산국제합창제는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계의 합창단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가을 합창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할 예정이다.

■ 일정

- 개막공연 11월 12일(수)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폐막공연 11월 15일(토) 오후 7:30(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
- 경연대회 11월 13일(목) -15일(토) 오전 11:00~오후 5:00 대극장, 중극장
참가 인원 외국팀 14개팀 한국팀 12개팀 경연
- 만남의 콘서트 11월 12일(수) 오후 12:00 시청로비, 13일(목)-15일(토) 오후 3:00 롯데백화점(본점, 센텀) 15일(토) 오후 4:00 TTL존
- 갈라 콘서트 11월 13일(목)-14일(금) 오후 7:30

■ 참가합창단

불가리아 Angel Manolov, 나이지리아 Angelic Voices of Nigeria, 필리핀 Capitol Glee Club, Cebu Chamber Singers, 말레이시아 Dithyrambic Singer 인도네시아 Gracioso Sonora Choir, 러시아 Grop 'Rojdestvo' 싱가포르 Holy innocents' High School Choir, 홍콩 Hongkong City University, 인도네시아 Mazmur Choral Kupang,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필리핀 Philippine Airline Chorale, Philippine Male Chorale, UP Vocal Ensemble-SIC Singers 외

■ 관람료 무료(개막공연은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서울신포니에타 제 13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패밀리 콘서트

11월 9일 일 오후 7:30 대극장



1987년 12월 창단 이래 실내악의 깊은 내면세계와 아름다움을 창조해온 전문예술법인 '서울신포니에타' 부산연주회.

창단연주 이후 그동안 500여회의 의욕적인 공연을 통하여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 각종 연주회를 가진 서울신포니에타는 고전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폭넓은 음악적 영역을 형성하면서 꾸준한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포니에타는 2007년 한국음악 비평가협회로부터 '한국음악대상' 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세레나데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이든/첼로협주곡 다장조 등

· 지휘/김영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협연/첼로 양욱진(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문의 서울신포니에타(02-732-0990~1)

글로리콰이어 제 18회 정기연주회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3년째 소년소녀가장돕기 연주회를 가지면서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글로리 콰이어제 18회 정기연주회.

· 지휘/이정철

· 반주/이영희, 이경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한명숙(019-9253-9991)

11월 유U:콘서트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하모니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성가곡에서 아카펠라, 성우 연기까지 다채로운 목소리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요들송과 카운터테너 김세진, 성우 양지운의 캐릭터 연기, 아카펠라와 비트박스 등 인간의 목소리가 뽐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알프스의 목소리, 요들송/닭의 요들,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아름다운 베르네산골

카운터테너/헨델 오페라 리날도 '올게하소서', 카치니 '아베마리아' 아카펠라/Walking down the street, CM송 메들리, 만화영화 주제가 메들리, 비트박스 등 수곡

· 사회/양지운(방송인)

· 출연/카운터테너 김세진, 요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카펠라그룹 D.I.A, 라스페란자, 칼라스

관람료 전석 15,000원

(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회원 30%할인)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5주년 및 뮤스트리오 20주년 기념 제 23회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그리고 회상...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5주년, 뮤스트리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는 상임지휘자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고 뮤스트리오의 협연으로 '베토벤 3중주 협주곡'과 '브람스 심포니 4번'을 들려준다.

뮤스트리오의 협연으로 '베토벤 3중주 협주곡'과 '브람스 심포니 4번'을 들려준다.

뮤스트리오는 1988년 피아니스트 조현선,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첼리스트 이유미로 창단되었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18, 080-8508-8310)

윤경선 가야금 독주회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실내악단 '산. 바다. 해', 부산가야금 연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경선의 가야금 독주회.

· 반주/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의 윤경선(017-501-2898)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1991년 창단, 부산지역 플루트 단체의 원조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부산플루트앙상블은 2000년 부산을 대표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밀레니엄 플루트 콘서트 콰이어와 합동연주를 갖

기도 했다.

프로그램

B.Carr/Federal Overture 제 1~10번

구트/디베르티멘토-재즈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등

· 특별출연/장원성(경성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가을의 낭만과 11시에 만나요!'

중극장 |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00

여유로운 오전시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클래식 향연.

전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지휘자 최선용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 비올라 수석 김가영, 오보에 부수석 류재환, 인제

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오윤주, 동의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최훈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 가브리엘 오보에, 넬라 환타지아 등 친숙한 명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교향곡 제 3번 F장조 작품 90 중 제3악장

브루흐/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모리꼬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넬라 환타지아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21 등 수곡

· 지휘/최선용

· 협연/김가영(비올라), 류재환(오보에), 오윤주(피아노), 최훈녀(소프라노)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대한민국 100만 人의 선택 '뮤지컬 명성황후' 부산공연

대극장 |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어떤 국적의 관객이건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98 NY Times), 진정 탁월한 작품이 뭔지 보여줬다('97 NY Times), 45명의 출연진과 600벌에 달하는 의상

은 눈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며, 연출은 나무랄 데가 없고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한다(Time Out), 긴장 속의 140분, 장엄한 무대에 압도('95 조선일보) 등 국내외 언론의 수 많은 찬사를 몰고 다니는 화제의 뮤지컬 '뮤지컬 명성황후' 부산공연.

명성황후 시해 백주기를 맞이하여 제작된 '명성황후'는 이문열 원작, 윤호진 연출, 김희갑 작곡으로 1995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올리면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약 10년 간 500여회 공연에 7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2003년 9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에서는 평균 객석 점유율 97%라는 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며, 뉴욕 브로드웨이, 런던 웨스트엔드, LA 등에서 다섯 차례의 공연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린 바 있다. 명성황후는 2007년 3월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 작/이문열

· 연출/윤호진

■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 문의 부산MBC(760-1166)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장극태(011-582-5189)

부산전자음악협회 제14회 정기연주회 2008 부산국제디지털음악축제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그동안 전자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의 접목으로 항상, 새로운 실험적 음악작업을 해 온 부산전자음악협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이번 공연은 박철홍, 하기중, 최종문, 주창근, 하경희, 이은섭, 이상윤 등 국내 작곡가 7인과 Robert Darroll(영국), Tomonari Higaki(일본), Thomas Peter(스위스)의 영상과 음악, 그리고 새로운 음향을 통한 입체적 작품이 연주된다.

프로그램

박철홍/Body

하기중/소리의 그림자 II

주창근/구성 III 등 수록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동관(011-873-7983)

가야오페라단 한국 오페라 60주년 기념 Concert Opera Rigoletto & La Boheme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한국 오페라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야오페라단과 양산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음악적인 완성도와 해설을 통한 오페라의 이해를 높여 오페라 마니아는 물론 오페라 관람 경험이 없는 관객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무대이다.



이슬미

김상호

홍지형

출연

La Boheme - 이재란, 김유진(이상 미미, 소프라노), 송승민, 황성학(이상 로돌포, 테너), 이윤순, 이슬미(이상 무제타, 소프라노), 고영호, 이종훈(마르첼로, 바리톤)

Rigoletto - 김상호, 김중화(이상 리골레토, 바리톤), 장은영, 김한나(이상 질다, 소프라노), 양승엽, 홍지형(이상 만토바, 테너), 박소연, 이민정(이상 말달레나, 메조소프라노), 권영기, 정용욱(이상 스파라푸칠레, 베이스)

· 예술총감독/이창균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청소년 및 중고생)

문의 가야오페라단(016-552-2958)

피아니스트 김은희 클래스연주회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6:00 소극장

이화여자대학교, 독일 에센 국립음대,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독일 마틴루터대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은희의 클래스 연주회.

· 연주/김은희, 박소연, 김시우, 최슬아, 조선정, 이지아, 강보경, 변주연, 성현지, 신지은, 한수지, 신주옥 외

관람료 초대

문의 김은희(010-9269-5567)

한얼정악연구소 제 13회 정기공연

우리얼 우리 가락을 찾아서...

'꿈틀거리는 詩語에 웃을 입히다!'

현대시조와 우리 가락의 만남 그리고 시화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시화전 오후 6:00)

중극장



시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시조창무극을 무대에 올려온 한얼정악연구소가 시조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 부산

시조시인협회와 함께 마련하는 특별기획 무대 '꿈틀거리는 詩語에 웃을 입히다'.

어린이시조창무극 '소풍'을 시작으로 부산시조 시인 전연희, 김창수 시인의 시낭송, 사계절을 노래한 부산 시조 시인들의 시조를 평시조, 여창지름, 우시조 등 다양한 시조 가락으로 부른다. 공연전 로비에서는 한국화 중견화백인 화산장익만선생이 詩語에 웃을 입혀 로비에서 시화전을 연다.

· 연출/정인경

· 각본/하현기, 이금주

· 춤/춤소리예술단(안무/김정원)

· 시낭송/전연희, 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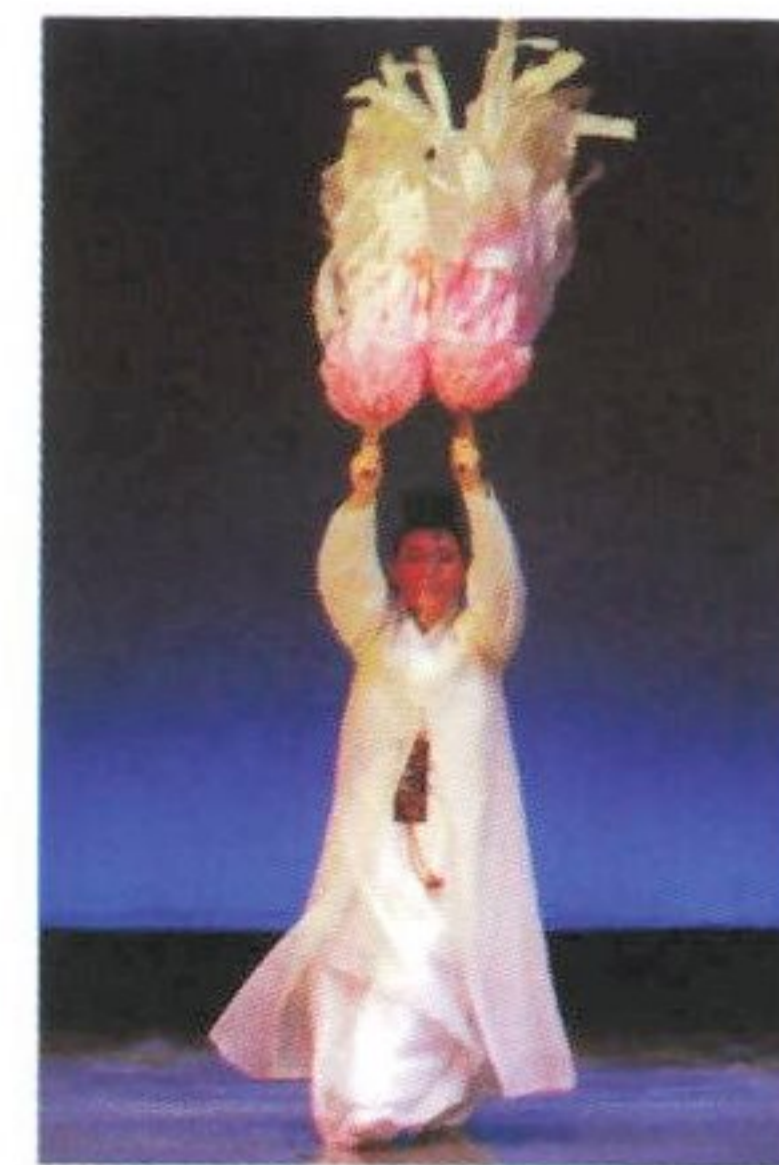
· 출연/하은찬 김도아, 박제영, 하송자, 이금주, 남혜원, 이희재, 박수진, 정유정, 방미연, 정유정, 박옥위(노래), 교사시조창연구회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한얼정악연구소(011-870-8597)

2008 서지영 무용단의 창작 우리춤 레퍼토리 바람이 전하는 말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춤공간 '어름' 대표,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부지회장으로 우리 춤을 전승, 보급해온 서지영 무용단의 우리 춤 한마당.

· 대본/양학련

· 안무/서지영

· 출연/윤정미, 서시영, 조현영, 전영란, 왕정희, 김민경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지영(753-9103, 011-847-9103)

동요사랑회 제15회 동요사랑큰잔치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6:00 소극장

어린이의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동요를 발표해온 동요사랑회가 들려주는 제 15회 동요사랑큰잔치. 동요사랑회 창작곡집 15집에 수록된 창작동요들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신진수/바람이 오는 길, 행운

김성덕/봄비, 오륙도 돌레 상 위 생선 한 마리, 가을 한마당 잔치, 횡단보도

안성주/노을이 지는 지면, 노래로 살아오

조혜진/꿈꾸는 고래

우덕상/놀려서 미안해, 태화강 유채꽃 기차 등 수록

· 노래/이연진, 이우진, 김영범, 강희정, 장진영, 이보람, 조승현 외

관람료 무료

문의 김성덕(010-4541-8576)

오륙도 여성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나눔, 행복 100%'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역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

을 나누는 오륙도 여성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오륙도, 노래의 날개 위에, 먼 산타 루치아, 추억, 가려나, 축제의 노래, 우리 사랑, 에레스 두, 날리리 맘보, 어디로 갈거냐, 정한가

· 지휘/강재권 · 피아노/송혜련

· 특별출연/해피양상블, 바이올린 김지은, 피아노 최양욱

· 특별공연/교방청무 김옥련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옥련(010-2533-7913)

테너 강학운 클래스 음악회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테너 강학운과 함께 음악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무대로 우리가곡, 오페라 아리아, 오페라 중창 등을 들려준다.

출연

배화자, 유옥희, 이숙자, 이경자, 안강연(이상 소프라노), 배태균, 박성만(이상 테너), 이기원(바리톤)

관람료 초대

문 의 강학운(010-9287-6350)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제 26회 정기연주회 창극 '흥부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정기연주회의 흥부전은 대규모의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구성, 곡 모두를 새롭게 작곡을 위촉하였다. 연출에 있어서도 판소리 흥부가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현대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 총기획/최현(부산대학교 국악학과장)
- 총연출/박찬영
- 지휘/배양현 · 작곡/백규진
- 출연/박성진, 최윤석, 김민선, 김은지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대학교 국악과(510-1739)

2008 정말숙 한국 전통춤 공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정말숙의 전통 춤 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인 '한', '흥', '멋'을 담은 살풀이춤, 승무 입춤 등 우리 전통춤 사위를 선보인다.

관람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 의 정말숙(011-864-853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4회 정기연주회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7:30 대극장



상하이 심포니와 같은 중국 내의 모든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한 젊은 현역 지휘자 리 신차오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영재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황제' 작품 73
R.슈트라우스/교향시 '영웅의 생애' 작품 40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손열음(피아니스트)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 여성합창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미루샘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 부산 어머니 합창발표회, 부산아시아 게임 홍보 시민보

고대회 초청연주, 여성문화회관 개관 10주년 행사공연, 부산합창제 등에 참가했다.

- 지휘/고봉수 · 반주/이남숙
- 특별출연/바리톤 이창룡(동아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신정순(동의대, 동아대 외래교수)

관람료 초대

문 의 고봉수(010-4434-6605)

CBMC 부산총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 기독교실업인회의 지난 50년간의 발자취와 업적을 기리는 CBMC 부산총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박종희가 지휘하는 김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출연

소프라노 백선아, 테너 조윤환, 대북 공연팀, 뮤지컬가수 신



백선아

조윤환

(011-9520-4649)

영미, 구원모, 김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박종희 지휘)

· 특별출연/기드온 콰이어

관람료 무료

문 의 이지무스

제 6회 부산종교인 평화예술제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6:30 중극장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 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종교인 평화예술제.

출연

바라밀 합창단, 원음합창단, 임경숙(고수), 김계재(명창) 천도교 연합합창단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차귀(017-570-3618)

제12회 새물결 동인 춤 모음전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무용계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가을 부산무용협회가 펼치는 '새물결 춤 모음전'의 여섯 번째 무대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장르의 창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현대무용 '부드러운 손을 가진 병어리'(안무/안희경 · 출연/임선희, 지숙정, 안희경)

한국무용 '밥보'(안무/박연정 · 출연/박연정 외 4명)

발레 '소풍을 꿈꾸다...' (안무/김서은 · 출연/최연순, 서지연, 김서은)

현대 무용 '흙놀이'(안무/함수경 · 출연/박태용, 류영주, 김동희, 김유하, 문은영, 김평수, 함수경)

한국무용 '장미, 그 가시를 품다...' (안무/김경아 · 출연/김경아, 장영진, 김보경, 서보경, 서아령, 최혜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A~100A)

시민회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대극장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반달이의 가슴 아픈 짝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그린 창작뮤지컬.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1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6:30
9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대극장

윤동주 시인의 삶과 예술을 다양한 영상과 연극적 기법으로 탄생시킨 연극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작/조한신 · 연출/표재순

· 출연/조승연, 차순배, 하성민, 기정수, 임홍식 외

관람료 초대

문의 시민회관(630-5200)



이건음악회-The Smith Quartet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현대음악을 역동적인 스타일과 독창적인 해석으로 연주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의 현악 4중주 'The Smith Quartet' 초청 이견음악회 부산무대.

관람료 초대

문의 이견산업(032-760-0385, www.eagon.com)

제5회 창작관악곡 연주회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동주여자고등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 부산지역 4개 고등학교 관악단과 일본 나가사키현립 가미쓰시마고등학교 관악단이 함께하는 관악의 밤.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3,000원

문의 전이동(010-2705-0366)

박대성 아쟁 독주회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세련되고 깔끔한 성음과 즉흥 연주에 뛰어난 아쟁의 대가 박대성의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박대성류 아쟁산조와 즉흥연주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시나위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박계향(판소리)

관람료 초대

문의 공연기획 소리터(010-8853-6962)



부산어머니가야금단 두 번째 정기연주회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부산, 경남지역 아마추어 가야금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어머니가야금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강봉천/산사의 메나리
박범훈/사랑의 춤
황병기(편곡/강봉천)/춘설
· 플루트/안지은

관람료 무료

문의 강봉천(011-355-4833)

건군 60주년 기념뮤지컬 MINE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지난 2000년 DMZ에서 발생한 이종명 중령의 실화를 소재로, 군인 아버지와 신세대 아들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軍 창작뮤지컬 'MINE'.

제목인 'MINE'은 군사 용어로 '지뢰지대'를 뜻하지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둘러싼 '가족'과 '군대'라는 공동체의 의미도 담고 있다.

· 예술감독/설도운 · 연출/김덕남

· 각색, 작사/문희 · 작곡/김태근

· 출연/이병준, 안철현(강타), 양동근, 홍기주, 박소연 외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주)쇼앤라이프(02-743-6487)



부산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의사들로 구성된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이 5월 창단공연에 이어 갖는 두 번째 정기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환희의 송가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스위스민요/아름다운 베르네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의 김태훈(017-543-0883)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국제수준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11, 12월 대관접수중

첨단 시스템의 녹음 음반제작

살롱합창단원 모집 중 12월 1일 오후 8시 오디션

음악영재교육 대안학교 사론국제음악원

찬양사역사 음악목사 목사 교육배출기관

사론천양신학교 겨울학기 학생모집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 녹음홀

GloVil Art Hall

607-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3호선 미남역 1번 출구에서 5분)
http://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Tel. 051-505-5995/051-504-5994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실내악 축제.

이번 무대에서는 강동석과 피아니스트 김영호, 유안철, 첼리스트 조영창, 양성원, 비올리스트 김상진 등 실력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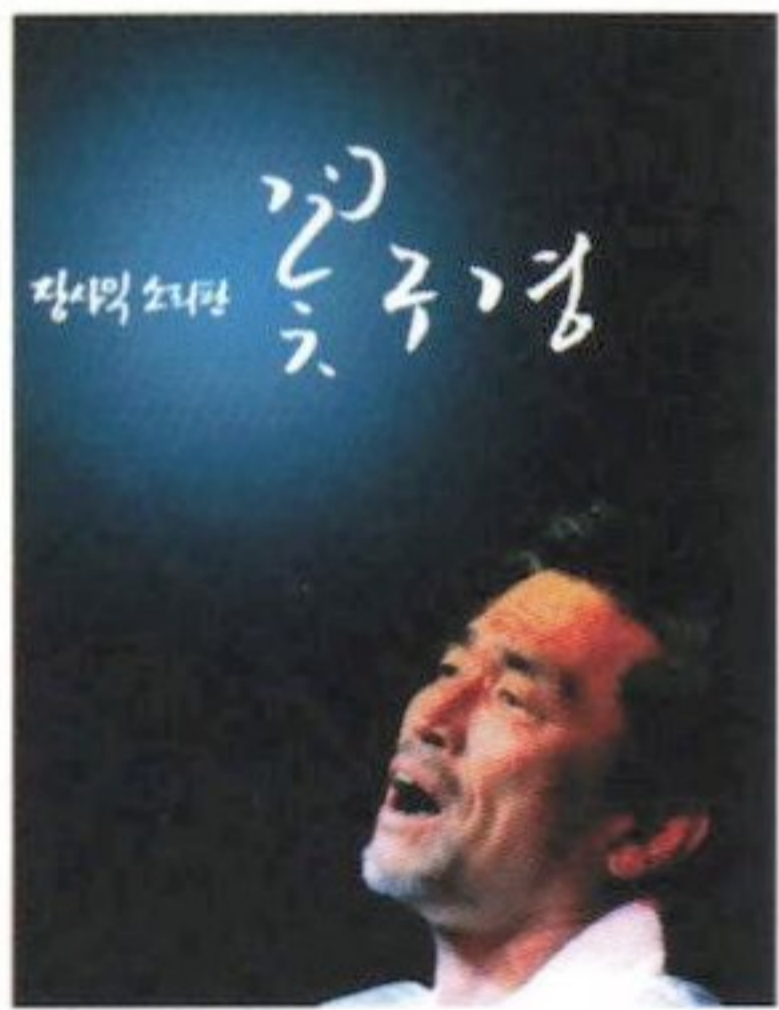
연주자들이 출연, 다채로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네 손을 위한 슬라브무곡 작품 46
브람스/피아노사중주 제 1번 사단조 등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장사익 소리판 '꽃구경'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농익은 소리를 들려주는 우리 시대 진정한 소리꾼 장사익의 소리판 '꽃구경'.

10월에 발매된 6집 음반 타이틀곡 '꽃구경'을 비롯해 그동안 불렀던 대표곡들과 대중음악을 장사익 특유의 감성으로 들려 준다.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20,000원
문의 행복을 뿌리는 판(02-396-0514)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동화 속에 등장하는 신기한 마법의 호박마차와 화려한 의상, 신나는 음악이 볼거리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문화예술기획 세종(050-2134-2580).



윤은하의 춤門 열어라, 꽃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윤은하의 첫 개인출판. 이번 무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창작춤과 우리 전통춤을 선보인다.

· 연출/장래훈
· 출연/이현숙, 류권홍, 이현주, 김정숙, 정선희, 윤은하
관람료 초대

문의 윤은하(010-2036-4848)

금정문화회관

라이브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캣츠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소공연장

뮤지컬의 신화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각색한 '어린이 캣츠'.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4,000원 할인)

문의 플러스기획(1688-8616)



부산페스티벌 기타양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바로크에서 현대곡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페스티벌 기타양상블 정기연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서승원(010-5198-0074)

성가곡의 밤

11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남성성악가 정거화, 박찬, 김태형, 김대성, 최기천, 양승엽이 들려주는 성가곡의 밤.

· 피아노/차미소란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거화(011-854-6178)

부산신포니에타 유망 신예 협연의 밤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지휘/박성원(부산대학교 교수)

· 출연/남윤영(부산대 3년), 최유승(부산예고 2년), 최자원(부산예고 2년 · 이상 바이올린), 박해리(인제대 1년), 정다은(학성여고 졸업), 전지수(부산예고 2년 · 이상 피아노), 박혜진(부산예고 1년 · 첼로)

관람료 초대

문의 김영희(011-9519-044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5일 부산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989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실내악축제,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회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 연주/장극태(플루트), 권성은(오보에), 홍용신(클라리넷), 이민정(호른), 김태윤(바순)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영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판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 국 산 : 소 · 중 · 대 · 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 · 중 · 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 · 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별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공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지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12일 벨리씨미 연주회

신라대학교 성악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벨리씨미'가 사랑, 이별, 그리움이라는 테마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19일 플루티스트 하지미&메조소프라노 강수양 2인음악회

현재 로댐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하지미와 아지무스오페라 단원으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수양 2인음악회.

■26일 배성아 & 정성흠 듀오콘서트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배성아와 아이리스 앙상블, iTrio 단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흠 듀오무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진소영 작곡 발표회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뷔르츠부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향사회, 부산작곡가협회, An-ti Stimmung, 창작합창21 회원으로 활동중인 작곡가 진소영 작곡발표회.

프로그램

나그네(박목월 詩),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윤(輪)', 탭댄서, 클라리넷, 피아노와 2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con brio' 등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한·독 수교 125주년 기념 독일가곡연구회 특별연주회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1987년 창단 후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독일가곡연구회가 한·독 수교 125주년을 기념해 독일



오페라 갈라 콘서트 무대를 마련한다.

- 연주/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백진현)
- 합창/동아콘서트라이어(지휘/김명규)
- 출연/소프라노 박미경, 김미성, 최훈녀, 황정원, 김혜정, 정서영,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정옥심, 테너 김현식, 문대진, 우원석, 바리톤 허종영, 김종화 베이스 이민환, 김일석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김현식(011-566-4172)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레스피기/설경, 빗방울, 안개
베르디/오페라 '돈카를로' 중 '로드리고의 죽음' 등
· 피아노/김승환 · 우정출연/소프라노 정태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하병욱(320-1910, 011-857-0685)

KCO String 와 피아노의 만남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들로 구성된 실력파 남성앙상



블 'KCO String' 과 피아니스트 정성흠의 만남.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4중주 사단조
베토벤/현악4중주 작품 18-4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작품 81
· 연주/임재홍, 김홍준(바이올린), 윤진원(비올라), 정재윤(첼로), 정성흠(피아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금정 Jazz Festival

- 유진박, 이정식, 젠틀레인, 크로스노트 -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재즈 향연, 금정 재즈 페스티벌. 국내 재즈밴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판매를 했던 젠틀레인인과 국내 최고의 섹스폰연주자 이정식, 천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밴드, 부산 출신의 실력파 뮤지션들로 구

성된 크로스노트 등이 출연, 개성있는 무대를 펼친다.
관람료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장철근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 독주회.

장철근은 현재 부산내셔널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다장조 K.296
사라사테/서주와 타란텔라
비탈리/사콘느 등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함께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동래 메가마트 : 051) 582-0808
- 남천 메가마트 : 051) 622-0815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 가족뮤지컬 궁금해요, 우주여행

11월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신비로 가득한 우주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신나는 뮤지컬과 과학실험이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 체험 뮤지컬.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2008 쇼페라 Lovely 콘서트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클래식과 올드팝이 연극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출연/배수진(단장), 테너 윤석, 소프라노 신정희, 윤장미, 최주현, 이은정, 오정민, 배우 박재영, 김영란 외
특별출연/문정수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코리아쇼페라단(501-3999)

동물뮤지컬 정글로 간 백설공주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공연장

비둘기, 양, 앵무새, 기니아피그, 뱀 등 동물들이 직접 출연하는 국내 최초 동물 퍼포먼스극.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초록공간(1566-9786)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2월 2일 화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메시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들려주는 '아기 예술을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전곡 연주무대.
'아기 예술을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은 메시앙의 피아노곡 가운데서도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가장 풍부하게 담긴 걸작으로, 피아노 곡중에서도 가장 난곡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한 음악적 언어가 가장 풍부하게 담긴 걸작으로, 피아노 곡중에서도 가장 난곡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4인 가족석 200,000원)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해운대문화회관

뮤지컬 루나틱

10월 18일(토)-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대공연장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집단발표를 통해 그들이 각자 미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코믹하게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토요일, 일요일 낮공연은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1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4:00, 7:30
대공연장



제 1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극본·작사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자선병원을 배경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처와 치유를 그린 휴먼드라마이다.

· 작, 연출/장유정 · 작곡/김혜성
관람료 VIP 40,000원 · R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제 14회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아르스 콰르텟 멤버이자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독주회.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다단조

파가니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onata Concertata

· 특별출연/조현선(피아노), 고충진(기타), 김희정(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하경희(첼로)

관람료 초대

문의 조현미(010-8551-0959)



제 1091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가을에 합창으로 만나는 쇼팽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쇼팽의 피아노곡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색다른 무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제 1091회 MBC 목요일음악회.

프로그램

오프닝/사랑의 인사, 카발레리나 루스티카나 간주곡
즐거운 합창이야기/시그널 모음, 되고송, 마빕이

쇼팽 피아노곡 모음/푸른밤(녹턴 내림마장조), 영원한 노래(즉흥환상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오영인, 부산아리랑싱어즈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어드림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



시네마인 다비드 챔버 오케스트라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클래식곡을 비롯해 현대음악,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다비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영화 '가을의 전설', '태극기 휘날리며', '신들러 리스트' 등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음악을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 지휘/김병수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다비드챔버오케스트라(011-857-3937)

KBS 부산홀



우리 뮤지컬 진짜진짜 좋아해

11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8:00

9일 일요일 오후 3:00, 7:00

1970년대 후반 임예진, 이덕화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 놓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하이틴 영화 '진짜진짜 좋아해'를 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학창시절의 풋풋한 첫사랑과 낭만이 1970~80년대 추억의 히트가요와 함께 펼쳐진다.

· 작/오은희 · 연출/김장섭
· 출연/박해미, 박상면, 이필모, 최병서, 김민수, 이윤표 외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오충근 김지연 김동규

롯데 펜트하임과 함께하는 The Classic 노블레스 음악회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소프라노 박정원, 바리톤 김동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피아니스트 김연정 등 정상급 연주자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2번 등 수곡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문의 KNN(850-9212)

2008 이루마 전국 투어콘서트 Ribbonized(어린시절로의 여행)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심플한 선율에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실어내는 감성적 연주로, 우리나라 뉴에이지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피아니스트 이루마 부산공연.

지난 2년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오래만에 무대에 서는

이루마는 이번 공연에서 보다 성숙하고 깊어진 그의 음악세계를 펼쳐보인다.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문의 스톰프 뮤직(02-2658-3546)

휘성콘서트 2008 Whee Show - 부산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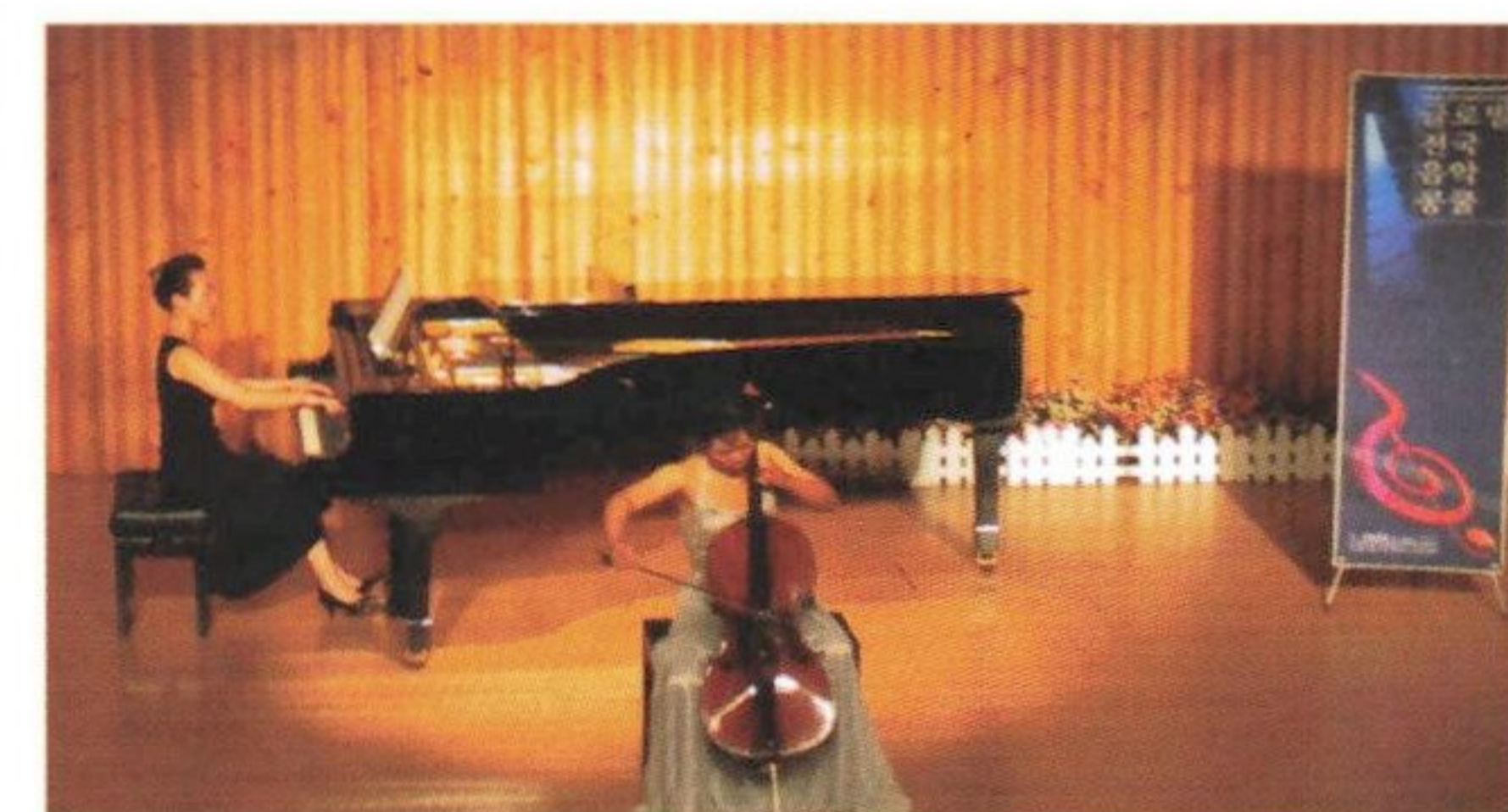
30일 일요일 오후 6:00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글로벌아트홀



제 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우수입상자 연주회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제 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한 우수 연주자들이 펼치는 수상 축하무대.

· 출연/이준상, 김기연, 최정수, 신주옥, 김진호, 안형주, 성지은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열린문화축제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열린문화축제로 독창 및 중창, 악기연주, 뮤직드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오페라과 신설

- ▶ 작품 : 푸치니 오페라 '리보림'
- ▶ 모집일시 : 수시모집
- ▶ 모집대상 :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 수업내용 : 오페라 악보연습, 연기
-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사~3시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BUSAN CONSERVATORY 사무실 TEL. 051-501-3999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대연분원 T. 629-9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자오 상가 2층)

라마,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관람료 초대

문의 박봉규(507-6577, 010-4879-8511)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전체대상 수상자 김재원 초청연주회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전체 대상인 부산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한 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김재원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3번 작품 12
바흐/바이올린소나타 제 1번 등

· 피아노/박필은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11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이 매달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행복음악회로,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 출연/김정원(소프라노), 남광복합주단, 이종완, 백정희, 최창호(색소폰양상블), 김빛날윤미(바이올린)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의 소극장

극단 이마주 Radio, 잠시 길을 잃다

10월 10일(금)-11월 11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용천지랄소극장

생기발랄, 엽기발랄 DJ와 함께하는 리얼 라디오 토크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이마주(752-5547)

극단 새벽 짜장면 불어요

10월 16일(목)-1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7:30, 일요일 오후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실제 우리동네에 있을 법한 '황금반점'을 배경으로, 배달청년 주인공이 세상을 향해 날리는 유쾌한 풍자극.

· 원작/이현 · 연출/이성민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김재형, 주윤정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마지막 20분동안 말하다

10월 16일(목)-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Red

두 남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애절한 연애 이야기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

· 작/김두용 · 연출/이영석

· 출연/김동현, 정청민, 박묘경, 손희승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배우그룹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배관공) 더 브릿지(The Bridge)

10월 21일(화)-11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사랑의 전설이 전해지는 '쥬얼리 브릿지'를 소재로, 현재와 과거, 전설 속 주인공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더 브릿지'.

· 작, 연출/주혜자

· 출연/배진만, 유재명, 이정비, 백선우, 강부현, 박다미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배관공(070-8132-3342)

극단 액터스 제 19회 정기공연 돼지사냥

10월 29일(수)-1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사라진 욕쟁이 할매네 씨돼지와 탈옥한 욕쟁이 할매의 막내아들 돼지의 두 행방을 놓고 펼쳐지는 세태풍자극.

· 작/이상우 · 연출/손병태

· 출연/호민, 김태훈, 박정현, 허정현, 한경석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액터스(016-569-4992)

환상동화

10월 31일(금)-11월 2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연극으로, 사랑과 예술, 전쟁의 광대로 분한 배우들이 시적인 언어로 풀어가는 연극 '환상동화'.

· 작, 연출/김동연

· 출연/송재룡, 임진웅, 이갑선, 이현배, 박소영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8 소극장페스티벌 '소통'

11월 3일(월)-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소극장 실천무대

공간, 너른, 미리내, 사랑과혁명, 실천무대, 액터스, 열린, 일터, 자갈치 등 전속극단을 운영하는 부산지역 9개 소극장으로 결성된 부산소극장운동협의회가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을 꿈꾸며 마련한 소극장페스티벌 첫 번째 무대.

■토론회 '부산의 연극과 소극장 운동'

3일(월) 오후 7:30 소극장 실천무대

■개막식

5일(수) 오후 6:00 일터소극장

■극단 시나위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5일(수)-9일(일) 일터소극장

유희성 짙은 놀이로 풀어 낸 극적 긴장감을 통해 웃지 못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표출한 작품.

· 작/김지용

· 연출/오정국

· 출연/김현진, 박근태, 반필우

■극단 자유바다 '서부극을 보러간 엄마'

5일(수), 7일(금)-9일(일) 소극장 실천무대
자살을 예고한 딸과 그를 말리려는 엄마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

· 원작/마샤 노먼 · 재구성, 연출/정경환
· 출연/강혜란, 송정민

■예술공동체 마르 Unlimited Dance-개인적 중력

12일(수)-15일(토) 일터소극장
well-made 공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춤이 가진 즉흥성과 몸의 즐거움을 복원한 창작무대.

· 안무/강희정 · 작, 연출/구현철
· 출연/강희정, 문라옥, 강수빈, 김동석 외

■극단 사계 뮤지컬 '사랑할까요'

12일(수)-16일(일) 소극장 실천무대
우정과 사랑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그려낸 코믹뮤지컬.

· 원작/머레이 쉬스갈 ·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이민영

■브레히트앙상블 '그 남자, 보이책'

19일(수)-23일(일) 일터소극장
독일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미완성 비극 '보이책'을 실험적으로 병용한 작품.

· 작, 연출/정태운
· 출연/정태운, 이미정

■극단 새벽 '어머니 날 낳으시고'

19일(수)-23일(일) 소극장 실천무대
일란성 쌍둥이 영란, 정란의 삶과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에 억눌려 살다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 변현주 1인극.

· 작, 연출/이성민

■극단 자갈치 '굿거리 트로트'

26일(수)-30일(일) 소극장 실천무대
부산의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를 돌며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우리나라 근대사를 그 때 그 시절 대중가요로 풀어낸 작품.

· 작/공동구성 · 연출/손재서
· 출연/전성호, 황지선, 최의덕, 최연호, 김수진 외

■폐막식

30일(일) 오후 9:00 소극장 실천무대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일반 16,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소극장 실천무대(245-59129)

변경숙 오르간 독주회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중앙교회
이화여자대학교와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파리국제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석)을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오르가니스트 변경숙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토카타와 푸가 바장조 BWV 540
멘델스존/소나타 III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변경숙(010-5549-0117)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4일 JMC 피아노음악연구회 연주회
1995년 설립된 목민피아노연구회에서 출발한 JMC 피아노음악연구회의 '네손과 여덟손을 위한 연주회'.

■11일 비르투오조 앙상블 '현을 위한 세레나데'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도경, 비올리스트 김은진, 첼리스트 정준수, 피아니스트 이진성으로 결성된 비르투오조 앙상블 무대.

■18일 동의남성들 '우정의 노래'
올해 4월 동의대학교 함도관 교수를 주축으로 음악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결성된 '동의남성들' 무대.

■25일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과 친구들
1986년 국내 최초의 그레고리오성이 전문 연주단체로 창단된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연주회.

· 지휘/이해원 · 오르간/최유정, 최정민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예술공동체 마르 제 10회 정기공연 Unlimited Dance-개인적 중력

11월 4일(화)-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열린소극장



well-made 공연에서 탈피하여 춤이 가진 즉흥성과 몸의 즐거움을 복원한 창작무대 '개인적인 중력'.

· 안무/강희정
· 작, 연출/구현철
· 출연/강희정, 문라옥, 강수빈, 김동석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20% 할인)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부산교사합창단 특별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가아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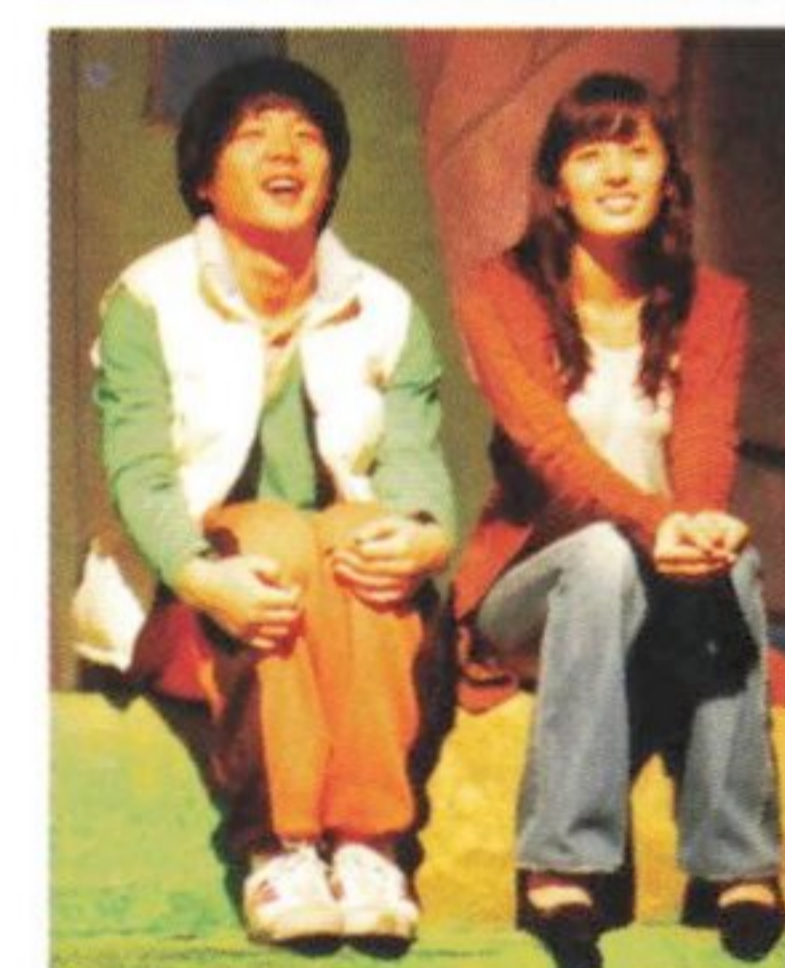
1995년 성악을 전공한 초·중등 음악교사들로 창단된 부산교사합창단 특별연주회로 클래식 합창의 백미로 일컫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전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 협연/소프라노 김방술, 알토 정옥심, 테너 이승우, 베이스 김종화
· 연주/칸타빌레 챔버오케스트라

관람료 초대
문 의 이성환(010-7294-5088)

연극 '강풀의 바보'

11월 7일(금)-12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수백만 네티즌의 마음을 울렸던 동명의 인터넷 만화를 원작으로, 바보 승룡이와 그의 친구,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다.

· 연출/추상욱
· 출연/송삼동, 김대명, 김민

진, 이영우, 김의성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극단 열린무대 긴여행

11월 14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무임승차한 두 남녀의 끝없는 도망을 통해 해결점 없는 순환과 윤희속에 구속당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는

작품.

· 작/장정일 · 각색/김경화
· 연출/김근수 · 출연/박훈영, 김현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일반 16,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액터스소극장 2인극 페스티벌 동물원 이야기

11월 19일(수)-29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전형적인 중산층인 피터와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하층민 제리의 만남을 통해 현대인의 단절과 소외현상을 이야기하는 2인극.

· 연출/이성규 · 출연/백길성, 김영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닥터 이라부

11월 20일(목)-12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화제의 베스트셀러 일본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공중그네' '인터폴'을 원작으로 한 연극 '닥터 이라부'. 강박증이라는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기는 에피소드가 코믹하게 펼쳐진다.

· 원작/오쿠다 히데오
· 작, 연출/김동연
· 출연/오종훈, 강진아, 이승준, 정혜진, 김용환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제 474회 가람화요음악회 사공유정, 송미희 피아노리사이틀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피아니스트 사공유정, 송미희가 함께하는 제 474회 가람화요음악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람아트홀(621-6669)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11월 28일(금)-12월 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10대에서 60대까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스케치를 보여주는 창작뮤지컬. 노총각 노처녀, 전라도 부부, 버릴 수 없는 사랑, love start,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섯 개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 작, 연출/위성진
· 작사/문희 · 작곡/송시현
· 출연/맹상렬, 조민정, 김현아, 오의식, 박은미, 김승필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행사

한국해양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 2008 Campus 음악회 바다가 땅이다

11월 4일 화요일 오후 4:00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

· 지휘/장진
· 협연/양욱진(첼로), 정선화(트롬본), 박광해(테너)
· 특별출연/오거돈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울림 제 77회 시낭송회 안도현 시인 초청 대담 안도현 시의 대중성은 어디서 오는가?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대담자/문학평론가 황선열
· 사회/한창욱 시인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전시

부산박물관 국제특별전시회 오래된 만남, 한국과 일본

9월 23일(화)-11월 23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문 의 부산박물관(610-7111,
museum.busan.go.kr)

From The Nature展

10월 1일(수)-11월 30일(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에비뉴엘 라운지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소치일가전

10월 27일(월)-11월 15일(화)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강서예술촌 제 10회 회원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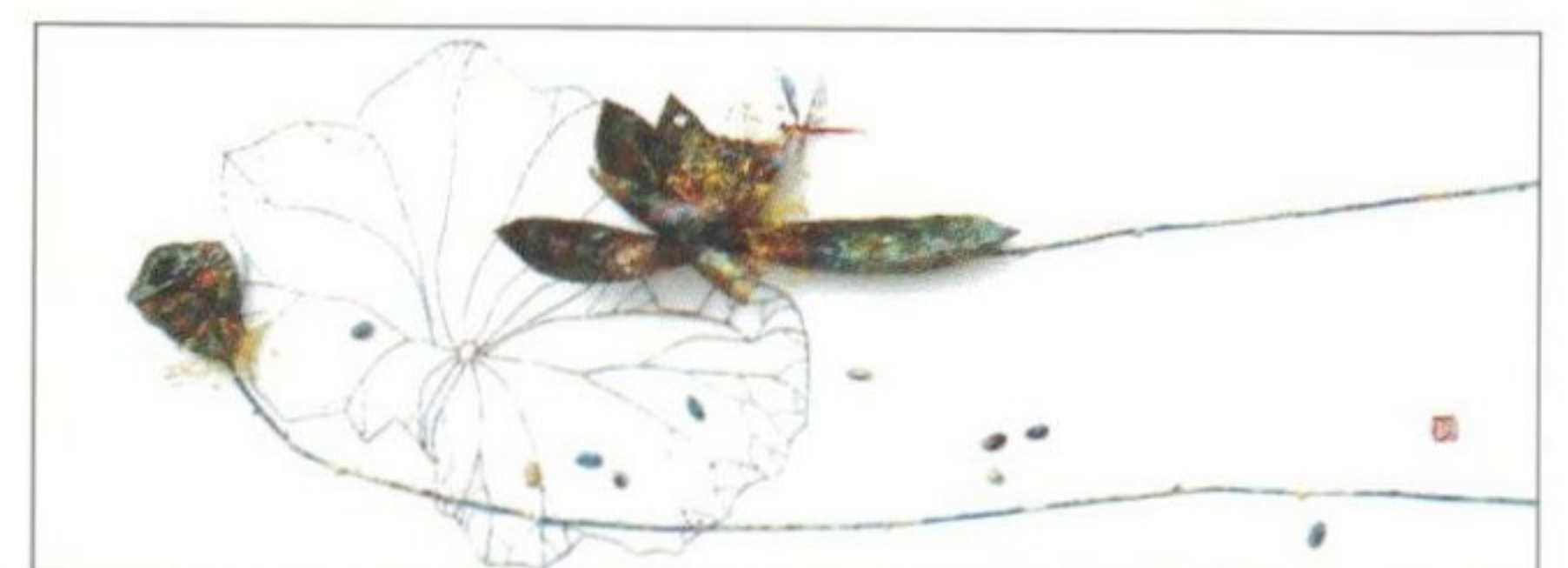
11월 1일(토)-12월 15일(월) 강서예술촌
문 의 강서예술촌(972-3912)

정선미 개인전

11월 4일(화)-11월 9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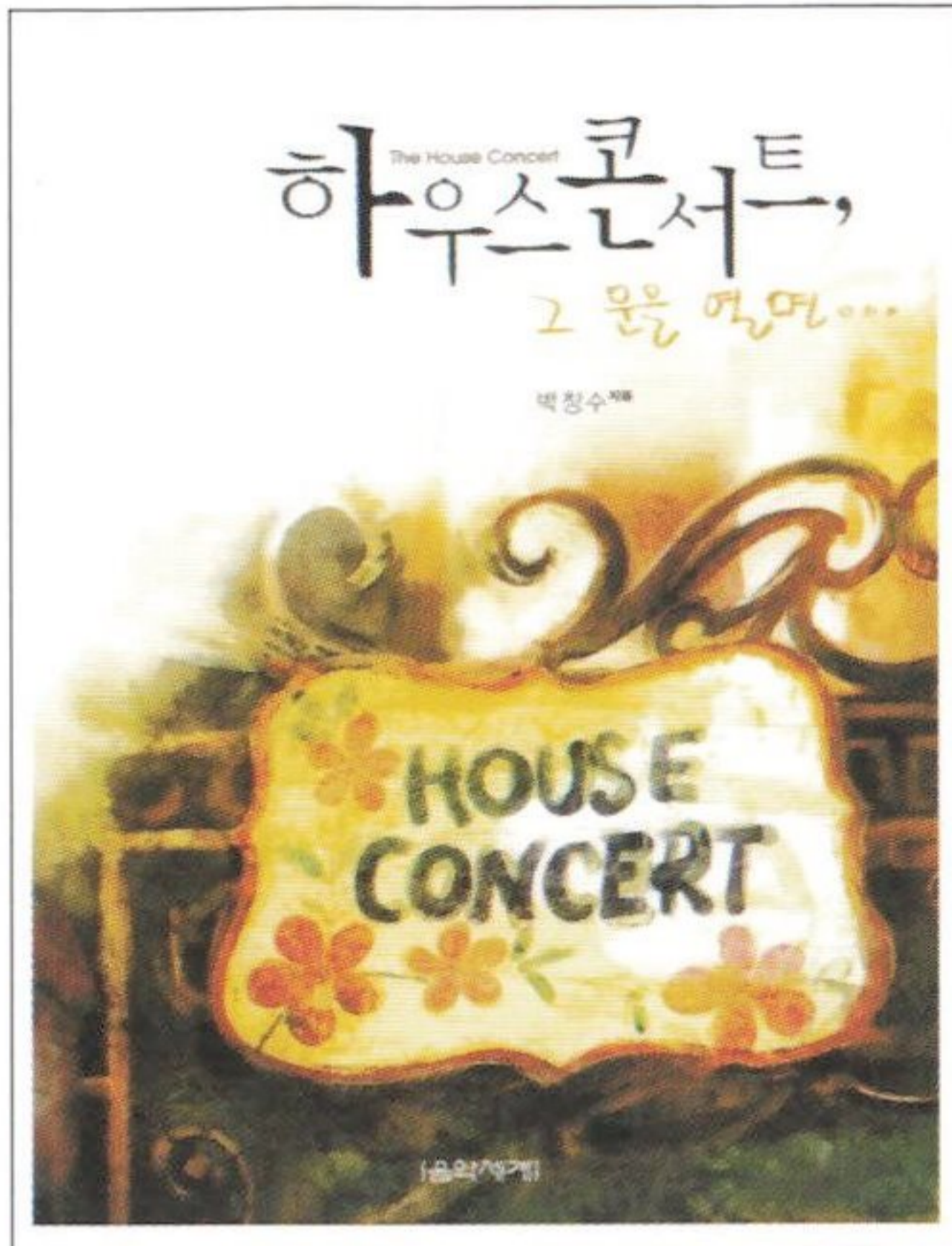
김용철 개인전

11월 18일(화)-11월 2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윤경아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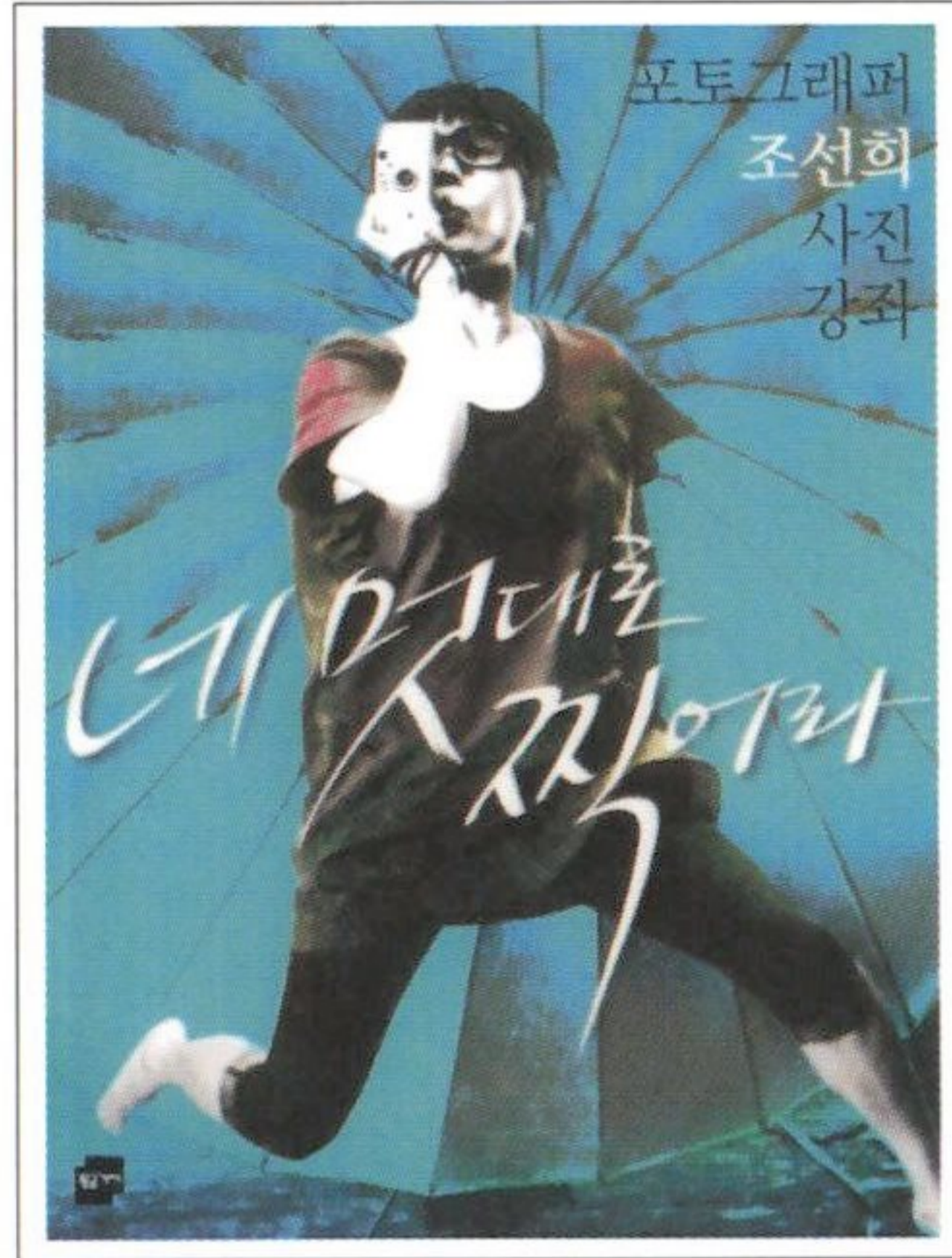
11월 19일(수)-12월 14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하우스 콘서트, 그 문을 열면...

• 박창수 지음 • 음악세계
• 275p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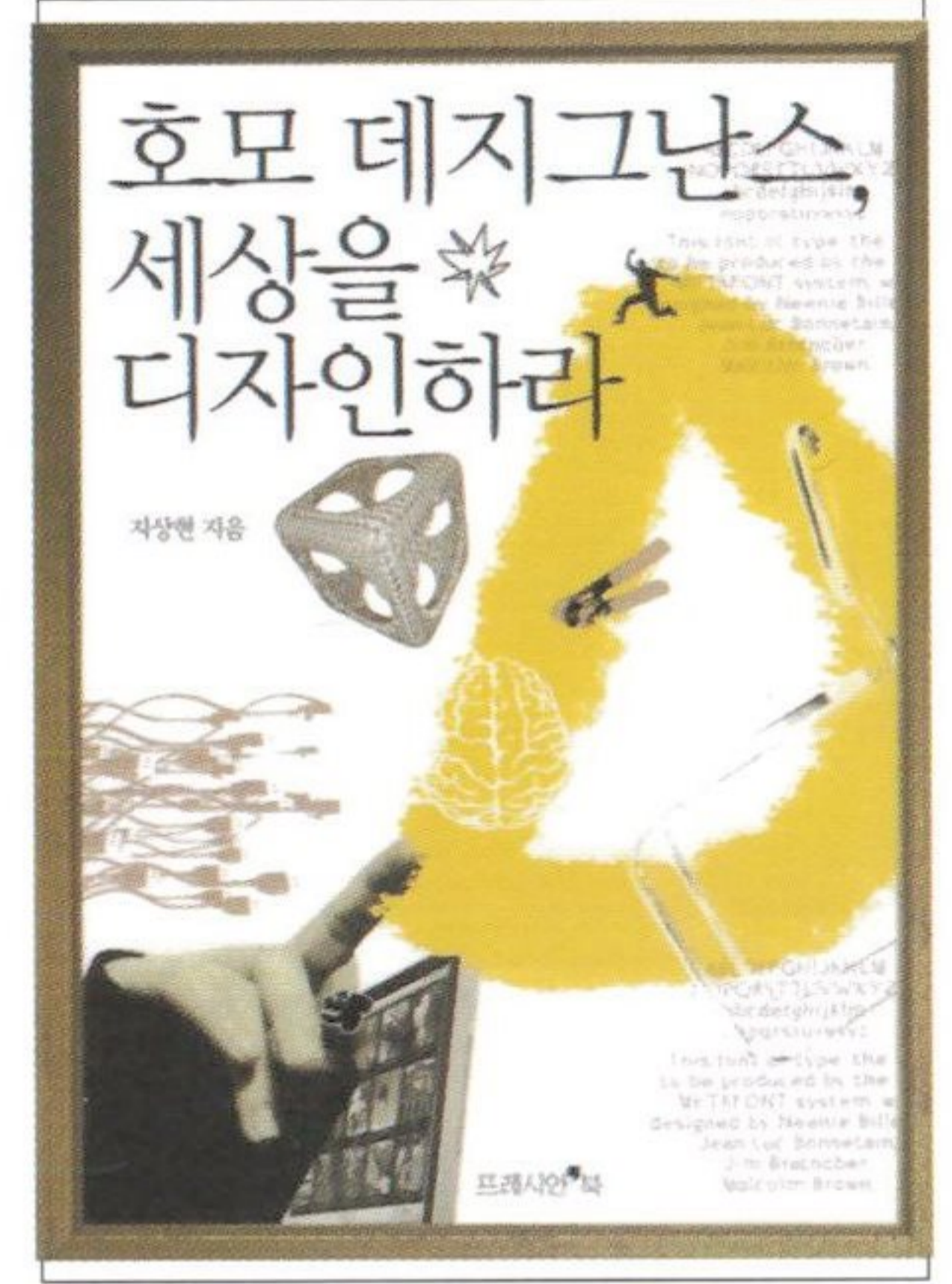
하우스콘서트는 집이 주는 편안함과 흐트러짐을 부담없이 즐기고, 연주자와 같은 높이의 마룻바닥에 앉아 그들의 땀방울, 숨소리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다. 형식을 갖추어 무대와 관객의 거리를 둔 공연장에서 듣는 음악과 하우스콘서트에서 듣는 음악은 어떻게 다를까.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리뮤직 연주자(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박창수 씨는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의 연주장이 아닌 열려있는 소통의 문화 공간 속에서 보다 창의적인 예술적 교류를 나누고 있다. 그는 연희동에 자리한 일반 가정집 2층의 약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2002년 7월 12일 제1회 하우스콘서트를 열었다. 그때부터 만 7년째 2주 간격으로, 때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꾸준히 음악회를 열었다. 그동안 약 5백여 명의 연주자와 문화예술인들,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하우스콘서트를 찾았다. 하우스콘서트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국악, 무용, 시리즈 연주회,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 강연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고, 연말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주인들이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가 개최되는 등 복합적 성격의 문화 공간이다. 또 다른 하우스콘서트가 여러 곳에서 열리면 좋겠다.



네 멋대로 찍어라

• 조선희 지음 • 황금가지
• 211p • 1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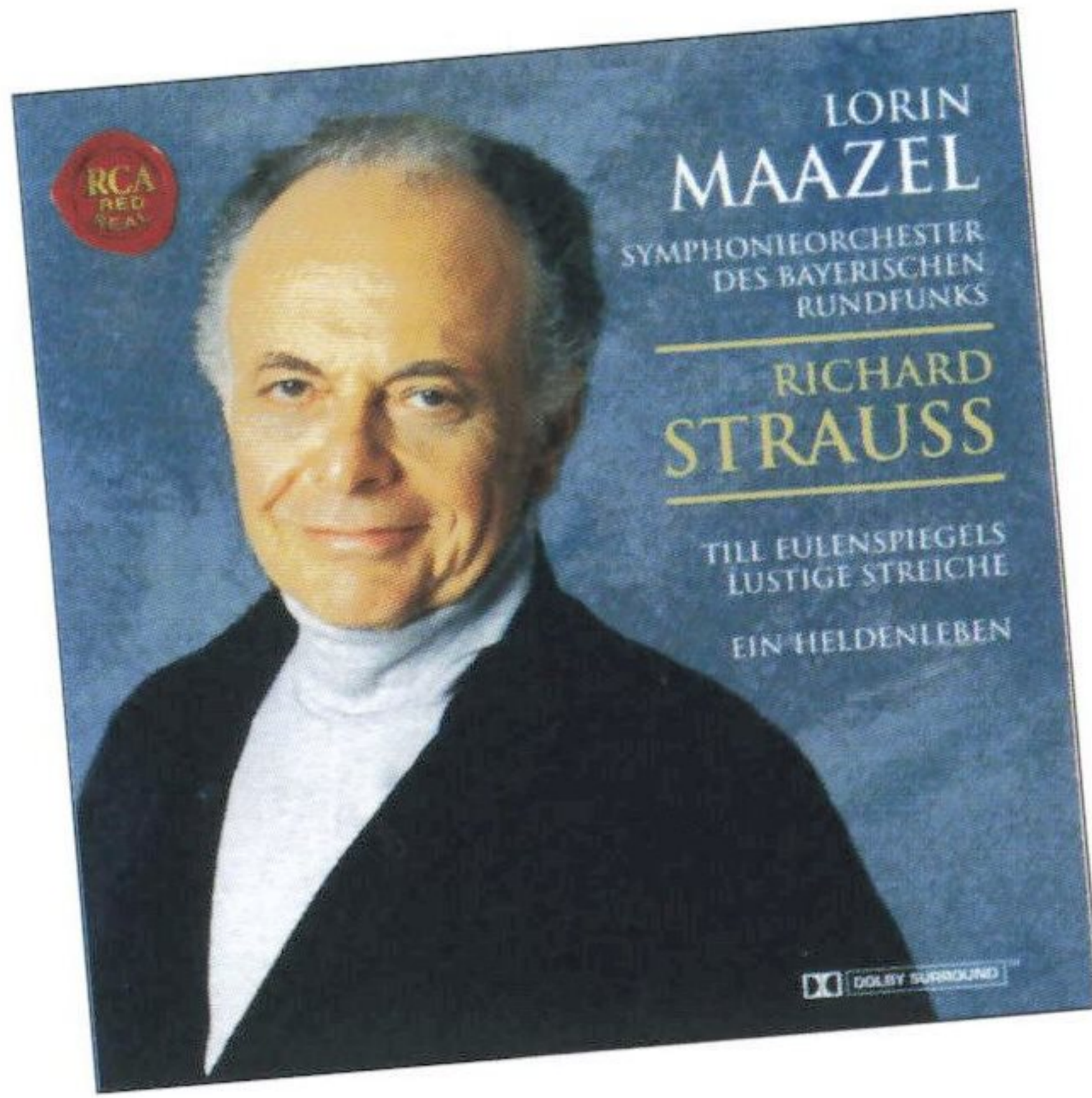
국내 최고의 포토그래퍼 조선희의 사진강좌. 사진 촬영법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독자들이 이 책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들이 가장 찍히고 싶어 하는 한국 최고의 인물 사진가가 몸으로 체득한 사진의 비결을 들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희 씨는 감수성 뚜렷한 사진들로 한국 사진계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장동건 등 톱스타들을 비롯하여 백남준, 장한나, 박지성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을 피사체로 삼아 독특한 포트레이트를 완성해 왔다. 이 책은 대단한 장비 없이 똑딱이 카메라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사진의 기본을 담았다.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그녀가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연습했던 방법과 사진 실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 역시 마음에 와 닿는 프로필이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찍어 보라' '새벽녘과 해질녘, 최소한의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 보라' '흑백 사진 연습으로 흑백의 눈으로 컬러 세계를 보는 눈을 기른다' '똑딱이를 들고 거리를 찍으며 출근하라' 등 조선희 식 조언이 솔깃하게 다가온다. <왜관 촌년 조선희, 카메라와 질기게 사랑하기>, <조선희의 힐링 포토>와 함께 또한 권의 '조선희 사진 에세이'로 기록될 책이다.



호모 데지그난스, 세상을 디자인하라

• 지상현 지음 • 프레시안북
• 246p • 13,800원

디자인의 시대 21세기의 인류는 디자인하는 인간, 호모 데지그난스(homo designans)이다. 편리하되 새롭고, 유용하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와 인간 읽기를 시도하는 책이 나왔다. 창작의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에 심리학을 접목시켜내는 디자인 심리학자 지상현 씨가 디자인 속에 담겨 있는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의 세계를 보여준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자주 보면 질리게 마련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디자이너와 일반인 모두가 디자인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디자인계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디자인을 소비하는 주체들의 인식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렇게 디자인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인식할 때,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그물망 속의 대상으로 다가오며 이를 통해 디자인을 더욱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스스로 물건을 선택하는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도 호모 데지그난스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영웅의 생애>

Richard Strauss(Ein Heldenleben)

· 로린 마젤 지휘/바이에른 방송과현악단(RCA, 1996년녹음)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은 주로 고난과 좌절, 고독과 투쟁 그리고 성취의 역사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 준다. 이들의 삶의 궤적은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이나 기록물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쓴 자서전이나 자전적 소설들, 초상화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음악에도 그런 자서전적 내용을 담은 음악이 있을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독일의 후기 낭만파 작곡가는 ‘영웅의 생애’라는 거대한 교향시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고백을 드러냈다. 34세가 되던 해인 1898년에 작곡된 자전적 교향시 ‘영웅의 생애’는 그 전에 쓰여졌던 교향시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환’ ‘돈키호테’ ‘죽음과 변용’ ‘틸 오일렌지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등 위대한 작품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작품이다.

단약장의 관현악곡이지만 무려 50분의 연주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작품이며 모두 6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영웅 2. 영웅의 전수 3. 영웅의 동반자 4. 영웅의 싸움터 5. 영웅의 업적 6. 영웅의 은퇴와 완성 등 6개의 부분은 각기 다른 주제들이 등장하여 이전에 나온 선율들과 조화되고 대립하며 다양한 음악적 전개를 이루어 나간다.

시작과 함께 현에서 등장하는 장엄한 영웅의 주제, 영웅을 비웃고 조종하는 적수들의 모습,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상케하는 긴 바이올린 솔로의 감미로운 선율로 구성된 동반자의 사랑과 위로, 싸움터에서의 긴박하고 격렬한 분위기와 그 속에 나타나는 영웅의 투쟁하는 모습과 동반자의 사랑스런 후원, 업적에서는 작곡자 자신이 그 동안 작곡했던 작품의 단편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에는 평화로움과 승리의 환희를 치밀한 관현악법과 아름다운 선율, 색채감 넘치는 화성으로 그려낸다.

‘영웅의 생애’에서 만들어진 영웅은 결국 슈트라우스 자신의 걱정스런 삶이고, 34살에 쓰여진 자아도취, 자화자찬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 곡의 비난에 대해, 결국 이 곡은 그의 음악적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주제로서

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슈트라우스 교향시의 정점에 있는 이 곡은 그에 걸맞게 8대의 호른과 5대의 트럼펫을 포함하는 화려한 금관악기군, 각 4대씩의 목관악기와 대규모 현악기로 이루어지며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교향시의 걸작 중의 걸작이다.

불과 9살의 나이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신동’ 로린 마젤과 바이에른 방송 관현악단의 이 음반은 매우 색채적이며 변화무쌍한 연주를 들려준다. 젊은 시절의 마젤은 힘차고 기개 넘치는 음악을 들려주었던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음악은 훨씬 유려해지고 음색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때로는 관능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필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드뷔시, 라벨 등 화려하고 색감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을 때는 늘 마젤의 음반을 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곡 역시 마젤의 화려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데, 시작하는 현의 투명한 울림과 간간이 더해지는 금관악기의 찬란한 음색, 때로는 기괴하게, 때로는 우아하게 들리는 목관 소리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융화시켜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마젤의 능력은 놀랍기 그지없다.

‘영웅의 생애’의 명반들 중 유려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카라얀 지휘의 1985년도 디지털 녹음이 최고의 음반으로 손꼽히며 루돌프 켐페가 드레스덴 슈타츠헨레를 지휘한 EMI의 1972년 음반은 고전적인 명반으로서 독일적인 탄탄한 관현악 울림과 작곡가에 대한 지휘자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음반이다. 그 외에도 프리츠 라이너/시카고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웅혼한 영웅의 기상과 극적 긴장감, 이 시대 최고의 심포니 지휘자 마리스 얀손스와 로열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열기에 찬 실황 DVD도 간과 할 수 없는 좋은 음원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뉴질랜드 초청 공연

-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8:00 뉴질랜드 오클랜드 Bruce Mason Centr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7년 10월 중국 북경 초청 연주회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사진은 북경 연주장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오는 11월 15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초청 연주길에 오른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교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초청연주회는 수석지휘자 박호성과 단원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문화 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8일 1,164석 규모의 Bruce Mason Centre에서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김선제 곡 창작 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이경섭 곡 해금을 위한 협주곡 '추상', 백규진 곡 창작 관현악 '화랑', 최상화 곡 풍물을 위한 '상쇠'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들려준다. 최상화곡 '상쇠'는 지난해 중국 북경 공연에서 연주해 교민은 물론이고 현지 중국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던 곡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오클랜드 초청 공연에서는 연주회 외에도 오클랜드 사물놀이 동호회와 교류하고, 오랜 타국 생활로 우리 문화에 목말라 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국악 강습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 이벤트 실시

- 매월 점프 초대권, 무료 시식권 추첨, 제공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신규 가입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정기회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 한다.

앞으로 신규회원 가입자들에게는 9월 부산문화회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점프 전용소극장의 공연 초대권 2명(1인 2매), 한우전문점 나랏소 무료 시식권 20명(1인 1매)을 제공한다. 한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체 22명을 추첨하고, 매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쥬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맘마미아-경쾌하고 즐거웠다. 달고나는 여기에 플러스 프리 허그까지. 추억과 열정의 2시간이 훨씬 넘는 공연시간내내 내가 무대에 섰다가 온 느낌이다. 묻어두었던 가슴의 뜨거움을 일깨우더니, 그래, 너희들의 아픈시간들을 내 다 안다, 알고말고.

이렇게 토닥토닥 등 두드리며 꼭 껴안아주기까지 하였다. 클래식도 그 당대에는 대중예술이었다던가. 오늘 무대에 올랐던 뮤지컬 넘버 24곡 모두가 7080세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시절의 클래식임에 틀림이 없다.

하예진(수영구 남천2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3회 정기연주회

처음 보는 클래식 공연이라 기대감은 파란 가을 하늘만큼 높았다. 아는 것은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 이름 뿐 지휘자도, 협연자도 잘 몰랐다. 첫 번째 곡은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라장조 작품 61번. 협연자 올리비에 샤를리에는 열정적인 무대로 관중들을 사로잡았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터진 박수는 공연장을 뜨겁게 했다. 이어진 두 번째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지휘자의 멋진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멋진 가을밤을 수놓았다. 두 곡의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클래식이 내안에 들어왔다.

성영순(동래구 칠산동)

27대 한낮의 유니콘서트

10월 공연은 나에게 30년전 여고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한 공연이었다. '솔베이지의 노래'를 멋지게 부르던 소프라노 가수 지망생이었던 친구가 생각났다. 음악은 추억이다.

김정미(동래구 수안동)

연극 '바쁘다 바빠'

광대연극제를 통해 입소문 자자한 '바쁘다 바빠'를 보게 되었다. 가난하지만 정신력으로 무장된 아버지와 개성 넘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사회풍자와 웃음으로 만들어낸 이 작품은 빠른 극 진행으로 1시간 30분 동안을 실 틈 없이 웃겨주었다. 관객과 배우가 서로 호흡하면서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는 연극! 웃을 일이 없다면 '바쁘다 바빠'를 강력추천한다!!!

권민화(사하구 당리동)

연극 '환생신화'

정말 이런 가족이 있을까... 진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자식을 위해 헌신적이었을 어머니가 불쌍하다 라는 생각부터 했다.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어딘가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너무 리얼하게 연기해주는 배우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현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곶창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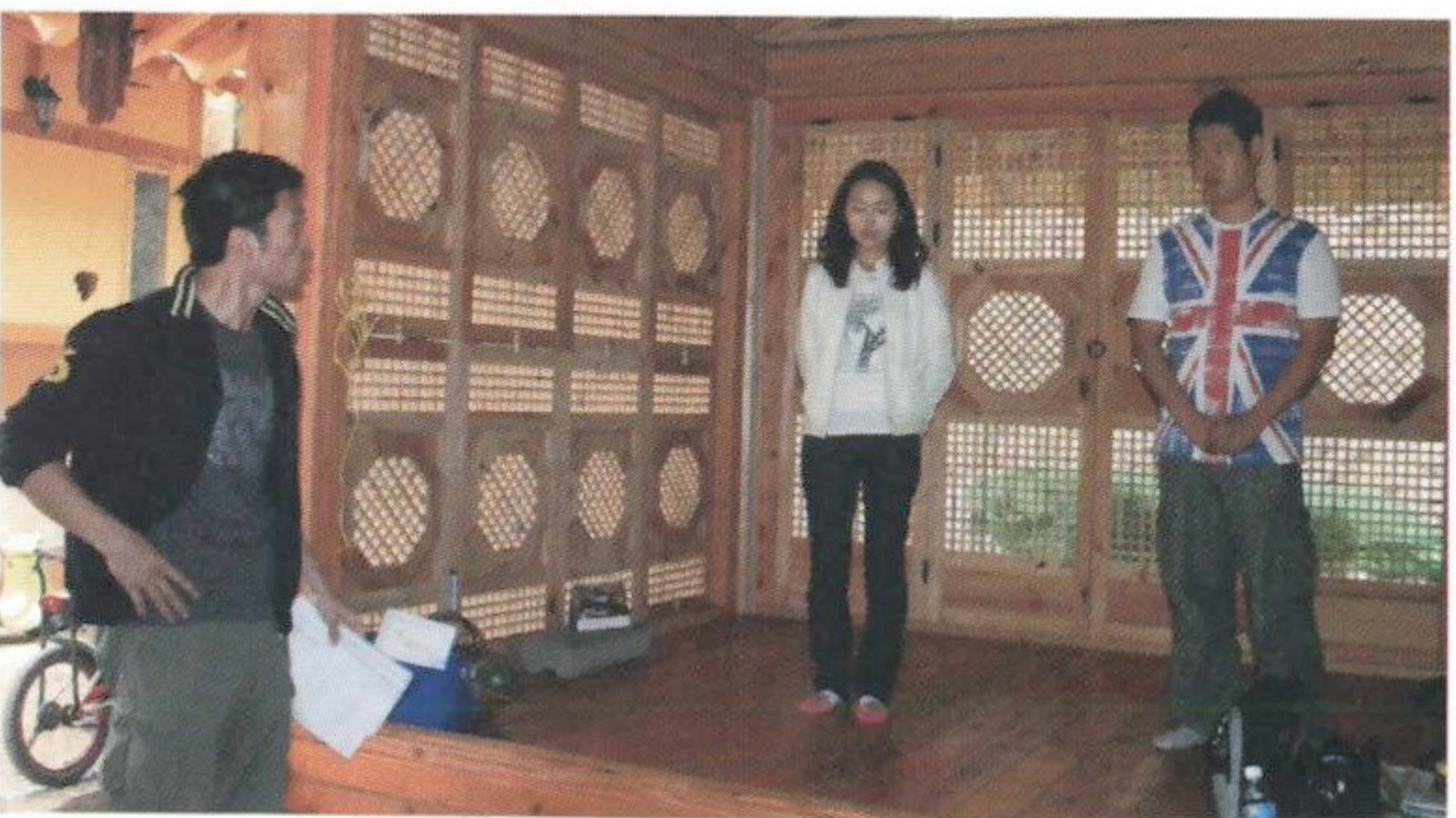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울산 암각화전시관으로 떠난 선사시대 여행



어느새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가을과 함께 떠난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울산암각화전시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설레게 했던 지난 10월 10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이 가을하늘만큼이나 부푼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10월에는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 씨와 단원 이환희, 신동훈, 제정경 씨가 여행길동무로 동행했다.

한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지난 5월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암각화박물관인 울산암각화전시관. 바위 위나 큰 절벽, 동굴 안 벽면 등에 새긴 '바위그림'을 일컫는 암각화는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현재 울산에는 두 곳의 암각화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바로 천전리 각석(국보 제 147호)과 반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 285호)이다.

지난 1971년 처음으로 발견된 후 지금까지 국내 암각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의 한 지류인 대곡천, 이른바 '건너 각단'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려져 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는 모두 10여 개에 이르는데, 고래, 물개, 거북 등 바다동물과 사슴, 호랑이, 멧돼지, 개 등 육지동물, 그리고 사람과 배, 그물, 작살 등 도구 등이 새겨져 있다. 지금은 사연담이 들어서면서 물 속에 잠겨있는데, 1년에 2~3개월 정도만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그나마 그 곳도 대곡천이 가로막고 있어 망원경과 대형모형도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유적지인 천전리 각석은 상단과 하단이 서로 다른 내용과 기법으로

그러져 있어,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석에는 선사인들이 남긴 신비로운 문양들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선각화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신라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두 곳의 암각화를 최첨단 시설로 살려낸 곳이 바로 울산암각화전시관이다. 울산암각화전시관은 고래모양을 한 특이한 외관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중나온 해설사를 따라 전시관에 들어서자 암각화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을 클로즈업한 화려한 영상의 선사탑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맞는다.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그림이 새겨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이자, 포경장면이 새겨진 세계 유일의 암각화로 역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그대로 재현한 실물 모형의 벽 앞에 선 정기회원 가족들은 암각화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CCTV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실시간으로 방영되면서 가보지 못한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세계의 암각화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식의 시설물 역시 최첨단 영상시설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면 선사시대 마을과 선사인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매직비전 영상을 이용한 선사시대 생활체험과 반구대 암각화 속 문양찾기 체험은 마치 컴퓨터 게임을 연상시키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을 나온 정기회원 가족들은 암각화를 직접 보기 위해 천전리 각석이 있는 천전리 계곡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곡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10여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천전리 각석이 우리를 맞았다. 해설사의 상세한 해설로 천전리 각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음 목적지인 울산 소소마을로 이동했다.

울산 소소마을은 지난해 농림부가 선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금농바이오랜드라는 고유브랜드로 다양한 농촌체험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이날 정기회원 가족들이 직접 경험할 체험은 염색체험과 팔양갱 만들기. 귀농 10년차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염색체험에 나선 회원들은 손수건에 고무줄로 묶어 문양을 잡은 후 염색물에 담겼다. 염색된 손수건을 헹궈서 건조시키기 위해 빨래줄에 널 회원들은 두 번째 체험인 팔양갱 만들기에 도전했다.

미리 내려놓은 팔양금을 가마솥에 넣어 걸죽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었다. 팔양갱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단원 이환희, 신동훈, 제정경 씨가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공연 ‘불가불가’ 한 장면을 연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 사이 만들어진 달콤한 팔양갱은 출출해진 정기회원 가족들의 손길을 바쁘게 했다. 부쩍 해가 짧아져 어둠이 내리자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테마여행 협찬 레임투어편〉

※ 12월은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1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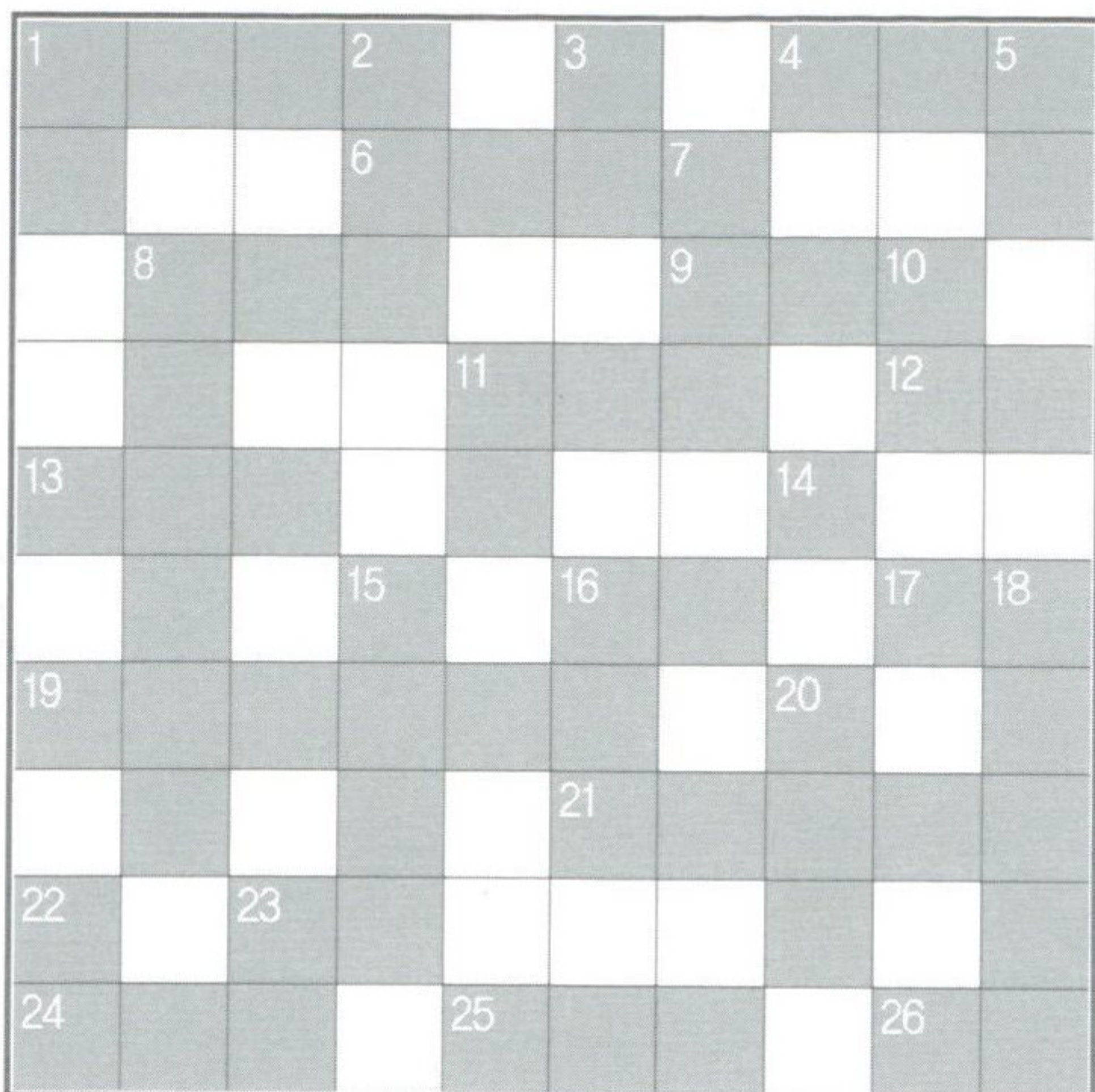
신규가입자

강은지(남구 대연3동)
김강영(동래구 명장2동)
김선남(해운대구 우동)
노채숙(수영구 광안 2동)
성지윤(남구 대연동)
양미향(금정구 구서동)
이진규(금정구 부곡3동)
임강현(금정구 서동)
정윤희(북구 화명동)
조은경(연제구 거제3동)

엽서 당첨자

김민경(남구 대연3동)
김최보리(남구 용호3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윤달막(부산진구 전포2동)
조유나(사하구 신평2동)
이정애(연제구 연산1동)
김미소(북구 만덕1동)
차숙정(금정구 장전2동)
손정웅(서구 서대신동 3가)
김정재(금정구 반여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극작가 이현화와 연출가 채윤일 콤비가 20년만에 다시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작품으로 20년만에 무대에 올린 화제작으로 10월 30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의 모든 지원활동을 총칭한다.
-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 현지어로는 '높은 봉우리'란 뜻으로, 산자락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공중도시'라고도 불린다.
- 일정한 음악이 자동연주되는 음악완구로 자명금(自鳴琴)이라고도 한다. 태엽의 힘으로 원통을 돌리면 바늘이 금속판을 튕겨서 소리를 내도록 장치되어 있다.
- 북한의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된 북한 고유의 사냥개.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 김말봉 작사, 김수현 작곡의 가곡.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 42.195Km를 달리는 육상경기에서 길이가 가장 긴 장거리 경주.
- 영화 '밀양'과 함께 2007년 칸영화제에 초청된 김기덕 감독, 장첸, 지아, 하정우 주연의 영화.
- 부드러운 천을 깐 테이블 위에 적, 백색 공을 큐로 쳐서 각자의 점수를 겨루는 레저스포츠.
- 프랑스의 사상이 파스칼이 지은 철학책. 명상록.
- 사회 규범과 관습에서 비껴나 있는 아웃사이더를 주인공으로 한 니콜라스 레이 감독,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 미국 작곡가 거쉰의 3막 오페라. 흑인영가와 민요가 많이 들어간 미국적 오페라로, 아리아로는 1막의 '서머타임', 2막의 '피로할 따름'이 유명하다.
- 중국에서 만들어 오늘날에도 쓰고있는 문자. 현재 알려져 있는 글자수는 약 5만에 이르나 실제로 쓰이는 것은 5천자 정도이다.
- 김홍도와 함께 풍속화의 쌍벽을 이루는 조선 후기 화가.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애정을 주로 그렸다. 호는 혜원.
- 지난 9월 26일 세상을 떠난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대표작으로 '스팅', '내일을 향해 쏴라', '타워링' 등
-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라는 제목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세로

- 세상에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 나이 40세를 이른다.
- 부산의 옛 지명.

- 만화, 소설, 영화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작품을 대상으로 팬들이 자신의 뜻대로 비틀기 하거나 재창작한 작품을 줄여 이르는 말.
-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군대에서 행군하거나 신호할 때 쓴다.
- 경상북도 김천과 충청북도 황간 사이에 있는 고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으로,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며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를 가르는 경계가 된다.
- 프랑스 가스통 르루의 소설을 영국의 작곡가 앤드류 L. 웨버가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흥축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아름다운 프리마돈나를 짝사랑한다는 내용으로, 1986년 런던에서 초연됐다.
-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을 웃기기 위해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갯짓.
-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중국 본토를 떠나 이 곳으로 옮겨왔다. 수도는 타이베이.
- 장진 감독, 이나영, 정재영 주연의 영화. 시한부 판정을 받은 2군 투수와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자와의 멜로를 그린 로맨틱 코메디극.
- 조선 선조 25년 이순신이 두차례 걸쳐 약 60척의 왜선을 격파하고 승전고를 울렸던 곳. 임진왜란 5대 승첩의 하나.
-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대표작으로는 '햄릿' '맥베드' '리어왕' '오셀로' 등 4대 비극과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태풍' 등이 있다.
-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창녀 소냐를 만난 후 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뒤에 덧붙여 말한다는 뜻으로, 편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앞에 쓰는 말.
-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지난호 정답

달	고	나	에	펠	탐	회
라	풀	베	태	극	기	
이	리	골	레	토	권	악
라			스	전	도	연
마	두	금	트	우	변	검
루	피	시	치	미		
맘	마	미	아	네	수	궁
기	노	르	마		합	
태	외		천	접	축	
국	보	부	산	국	제	영
						화
						제

퍼즐 당첨자 명단

■ 가미골 소극장

- 구영아(북구 만덕동)
강주석(시하구 감천1동)
김태훈(시하구 하단 2동)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이현주(북구 화명동)

■ 나랏소

- 김예술(남구 대연 6동)
강태균(해운대구 반송 3동)
장보경(연제구 거제 2동)
박수영(부산진구 전포1동)
송경은(연제구 연산 9동)

■ 큰집

- 권태한(부산진구 개금1동)
황용언(동래구 낙민동)
김경배(부산진구 개금1동)
오용두(서구 남부민동)
이서경(서대신동 2가)

■ 도서상품권

- 이지영(사상구 학장동)
류우정(동래구 사직3동)
우수연(수영구 광안1동)
이하영(금정구 장전1동)
김요안(동구 범일 2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캘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최고급 부산관광 코디네이터

나랏소

만우 스타볼구이 골방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한국음악과 세계합창의 어울림”

World Choral Fantasy in Busan

2008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명창 김영임

• 비보이 "TIP"

▶ 출연

- 명창 김영임
- 퍼포먼스 그룹 세계챔피언 B-boy "TIP"
- 성악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송승민
- 창 박성희, 정선희 • 동요 윤연수
- 객원오케스트라 뉴 프라임오케스트라
- 합창 부산국제합창제 참가연합합창단



• 풍물 버숨새 예술단



• 무용 춤패 배김새

-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국합창조직위원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 주관방송 / KBS 부산방송총국
- ▶ 협찬 / 한국전력공사 Focus

▶ 공연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051)607-6070
- 한국합창조직위원회 051)622-0534 www.koreachoral.or.kr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언제나 좋은 자리!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골든 브라스'

■ 프로그램

요제프 프란츠 바그너/쌍두 독수리의 깃발 아래(쌍두취 행진곡)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수상음악 모음곡' 중
'알레그로' & '호른파이프'
플라시도 도밍고 & 모린 맥거번 노래/끝없는 사랑
리로이 앤더슨/나팔수의 휴일 카펜터즈/에스터데이 원스 모어
루터 헨더슨 편곡/세인트 할렐루야 호세 파디아/엘 릴리카리오
비틀즈/렛잇비 등 수곡
· 연주/이민정(호른), 황성렬(트럼펫 I), 윤상명(트럼펫 II), 전해상(트롬본)
라중철(튜바), 예병현(세트 드럼)

11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

■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유경조 · 소금/조은경 · 대금/엄익준, 강은주, 황두호 ·
피리/김우용, 권미정, 진형준 · 해금/김민정, 이은주 외)
아쟁산조 '박종선류'(아쟁/박 일 · 장구/송강수)
가야금중주 '침향무'(가야금/이명일, 김혜진, 정미자, 오은영 · 장구/이장우)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채수만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권혜정 · 가야금/송영남 외)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권혜정 · 가야금
/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전학수 · 징/이주현)
※예술감독/박호성
※해설/백규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아리랑(출연/이정인, 김진영, 강미향, 윤은하, 안주희)
춘향전 중 '사랑가'(출연/권봉정, 김기원)
승무(출연/김주연 · 뒷장고/장래훈)
동래한량무(출연/강모세, 최의옥, 김윤희)
소고춤(출연/김공주, 허태성)
성주허튼춤(출연/서현미, 오숙례, 이현숙)
설장고춤(출연/김윤희, 성현우 · 악사/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황대현)
※안무/홍기태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 '위자료'

연극 '위자료'는 차범석의 리얼리즘 희곡으로 인간본연의 욕망중 하나
인 화폐에 대한 물신적 숭배 등을 그 주제로 해서 삶의 편린들을 충실
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 원작/차범석
· 연출/채윤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 등장인물/이은주, 백상희, 엄준필, 백길성, 오영섭, 신동훈

· 관람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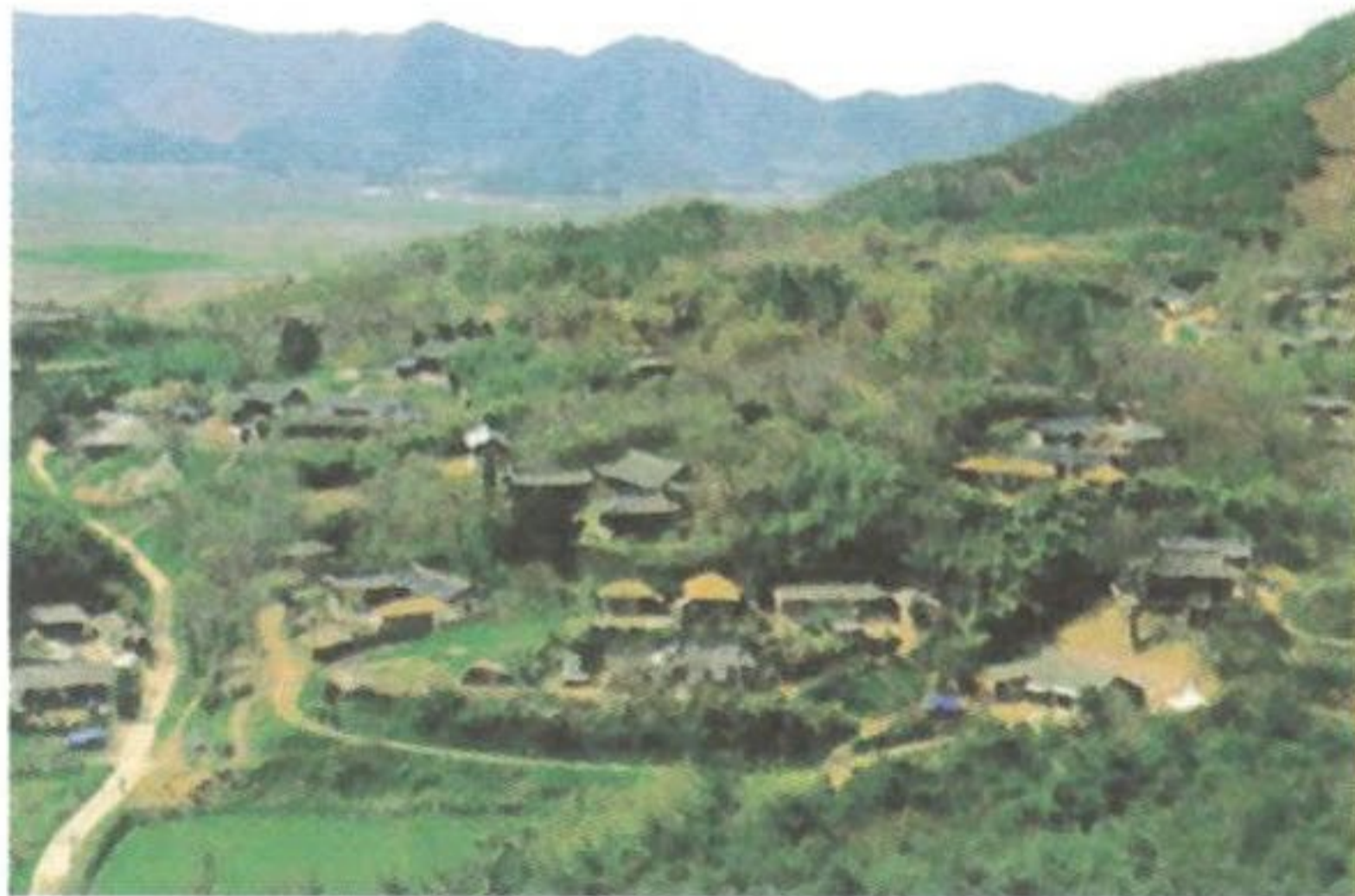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이비케이 (해운대점) 50,000원(R석) / 40,000원(S석)

· 푸른해시 시 1대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시 할인 가능 · 티 푸른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12월 12일(금) 경주 양동 민속마을 민속 체험

500년이 넘는 고색창연한 고와가(古瓦家)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고즈넉한 초가로 이루어진 경주 양동마을로 떠나는 겨울여행. 오랜 기억 속 시골 마을의 추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예와 효를 배워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분황사, 황룡사지 답사
- ▷ 12:00 양동마을 도착, 중식
- ▷ 13:00 양동마을 탐방
- ▷ 14:00 양동마을 민속 체험(전통놀이, 한과 만들기)
- ▷ 17:00 부산으로 출발



▶ 2009년 1월 9일(금) 호국 충의의 고장 의령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른 홍의장군 곽재우의 정신이 살아있는 충의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의령 농촌체험교육장 도착, 체험
- ▷ 12:00 중식
- ▷ 13:00 곽망우당(곽재우) 생가-이병철 생가-정암진-충의사 답사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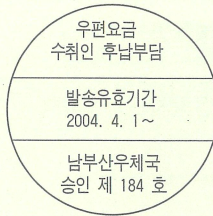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환상동화



▶ 날짜: 20

▶ 시간: 평

토

일

(월

· 작·연출/경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

세계문화

응두산공원
통합입장권

(전망대+세계민속
: 대인 5,500원)

▶ 날짜: 2008.

▶ 시간: 오전 10

(마지막 입장 오후 6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

부산타워 상담권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

• 날짜: 2007년 12월 1일 ~

• 시간: 평일 - 오전 10시 ~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당신의 피부속을 진드

맛사지 무료

DR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닥터▲큐 남천점 Tel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2월 테마여행 응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예서는 11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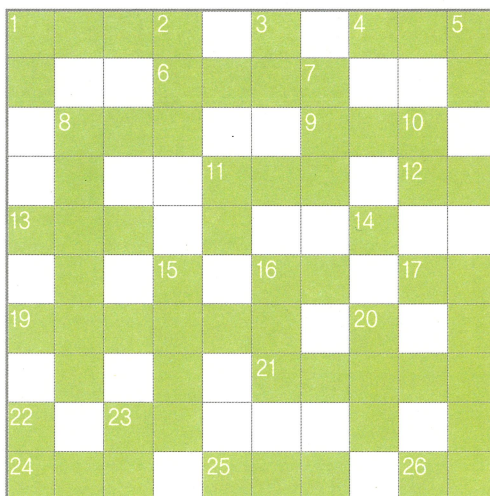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떠들 짱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愛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 할인받자!!

* 본 혜택은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시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일본 단풍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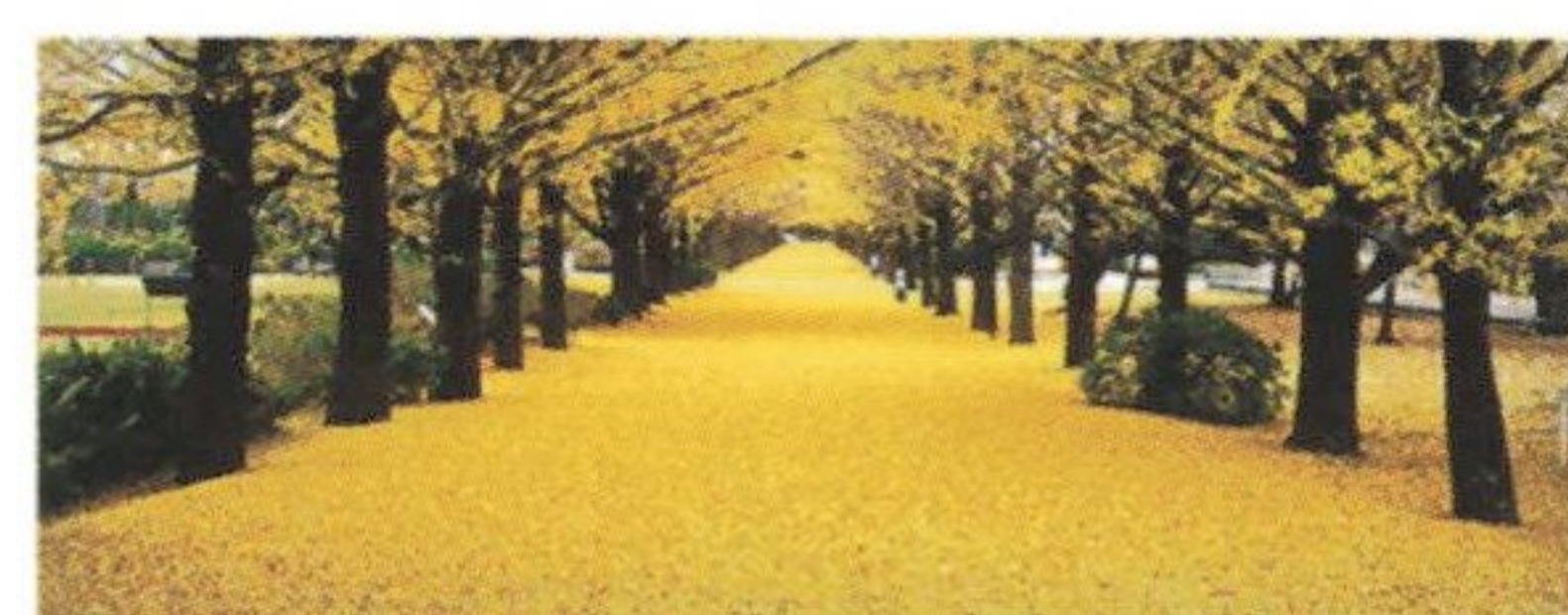
가을에 떠나는 낭만적인 단풍여행



온천+단풍 일석이조
북큐슈 온천여행 3일/4일
JKP731 599,000원~



역사와 전통+단풍
오사카/나라/교토 3일/4일
JHP741 819,000원~



단풍기행-紅葉
도쿄/니고/하코네 4일
JHP731 959,000원~

3시간거리 해외여행

국내보다 가까운 해외 여행지 BEST3



愛.友.情.樂
상해/소주/항주 4일
CCP753 5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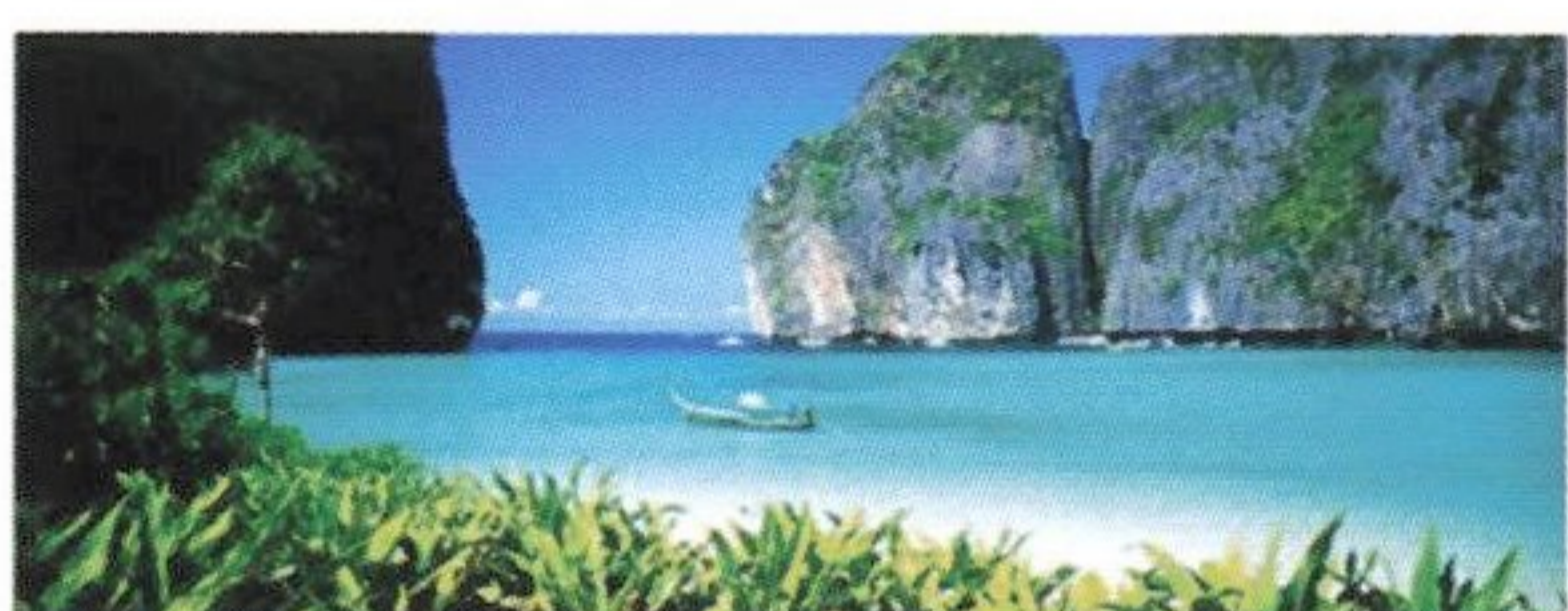
쇼핑과 야경천국
홍콩+마담투소 4일
AHP701 669,000원~



과거와 현재가 공존
대만/화련/아류/온천욕 4일
ATP702 849,000원~

오감만족 미각여행

최고의 맛을 찾는 화려한 여행



食 in 푸켓
푸켓/피피섬 4일-엣판타
ABP102 719,000원~



食 in 마닐라
마닐라/푸닝(유황온천)/명소 4일
APP101 729,000원~



맛집 기행
쿠로가와+유후인/규슈온천 4일
JKP542 1,099,000원~

창립 15주년 특가여행

동반자할인 또는 15%할인 여행상품



동반자 5만원 할인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5일
APP701 749,000원~



동반자 5만원 할인
세부 힐튼 리조트 4일
APP753 899,000원~



15% 할인
사이판 특급 마리아나 리조트 5일
PSP710 1,019,150원~

HiHAN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3%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이상준팀장 직통 051-442-1271 / 이순남 직통 051-442-1272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1759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가을의 낭만과

11시에 만나요!

브람스 교향곡 제3번 中 제3악장 *Poco Allegretto*
브루흐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영화 「미션」 中 “Gabriel's Oboe” - “Nella Fatasia”
도니체티 「샤무니의 린다」 中 “내 마음의 빛”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제2번 中 왈츠 II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中 제1악장 *Maestoso* 외 수곡



지휘 · 최선웅



비올라 · 김가영



오보에 · 류재환



피아노 · 오윤주



소프라노 · 최현녀

2008. **11.21** (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후원 - Focus

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 균일 10,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처 - 티켓링크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Sumi Jo & Alessandro Safina's
Love songs from around the World

간직하고픈 그리움과 사랑가득 담긴 꿈으로의 여행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Dream with Me



2008. 12. 7 | 일 |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 A석 8만원 · B석 6만원

예매 ticketlink ☎1588-789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051-607-607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경남 대표채널

주관  부산문화회관  SMI Entertainment Inc.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